

문대통령 “경제 빠르게 회복...4차지원금지급에 속도내야”

[칼럼] 선거자금과 군소후보들의 현주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

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등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8만 명이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덕암/김근식

돈과 인맥은 선거에 필수적인 요소다. 오죽하면 낙선 3번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을까. 그런데도 한번 도전한 후보는 좀처럼 포기할 줄 모르고 마약에 취한 냥 선거마다 출마하여 곧 될 것만 같은 권력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필자는 지난 시간 적어도 수 백 명의 후보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당선되면 국민의 불행 낙선하면 출마자 한 사람의 불행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다.

물론 대부분 예상은 적중했지만 자고로 선거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을 선출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후보 개개인의 자질이나 함량보다는 대세만 타면 너도나도 앓을 수 있는 자리다 보니 결국 그 폐해를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겪게 되는 것이다.

선거에도 돈은 필수다. 말야야 출마해서 특정 표를 얻으면 선관위에서 보전되는 선거자금도 있으니 큰 돈 안 들겠다 싶겠지만 이미 선거 수개월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예정 후보들에게 뻗치는 검은 마수(?)는 다양하다.

선거캠프가 차려지면 본격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간혹 진정 한 봉사자들도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되면 식대부터 인건비와 홍보비, 유세차량과 임대료는 물론 이래저래 당장 나가는 돈이 한두푼이 아니다.

여차하면 공식선거자금 범위를 벗어나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 자칫 돈 쓰고 무덤을 파는 경우도 생긴다. 선거캠프의 특성상 후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요구 사람들이 약아져서 그리 만만치 않다.

여기부터가 문제다. 후보가 당선될 만하면 이권 게임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후원이 줄을 잇거나 뒷돈 거래가 시작된다. 이른바 당선되면 반대 급부를 바라는 자들의 대가성 후원이며 단체들 또한 당선되면 한 자리 달라는 의미로 지지 선언을 자처한다.

대부분 1번과 2번이다. 뿌리치면 표를 잃을 것이고 받자니 여차하면 발목을 잡힐 것이 현주소다.

나름 경험이 풍부한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책임자급이 구분해서 후원을 받아야 하며 간혹 사법부에 피리가 잡히거나 내부 제보로 언론에 보도되면 조폭 영화처럼 혼자 독박 쓰고 실행을 살든지 있는 사실대로 불어서 당선무효형을 받기도 한다.

알고 보면 선거 자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타고 넘어야 하는데 어떤 방패든 다 뚫는 창과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공존할 수 없다 선관위의 개정된 법률안은 결번 걸리는 이현령 비현령과도 같은 그물망이다.

이러서 정당을 끼고 하면 다소 믿는 구석도 생기지만 자칫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도 줄이게 되는 것이다. 어렵게 투표 당일까지 버텨도 해도 이미 각종 여론조사와 앞서서 난리치는 방송사들의 요란에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느 정도 정해진 뒤다.

여주시, 수도 동부권 으뜸도시 급상승하다



이항진시장, 광역고속전철 도약 기자회견-

강천역이 신설되면 여주~원주 간 21.95km 무정차에 따른 교통 불편 등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뿐 아니라 여주시 관광 자원 활용, 지역 균형 발전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강선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강원권 균형적 도시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여주시는 신설될 강천역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인 지역 개발을 위해 강천역세권개발 구상 용역을 강천역 신설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추진과정과 비전을 제시한 이 시장은 여주역 이용수요 증대에 맞게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주 역세권 추가 개발을 위해 2020년 11월 541천㎡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여주시장이 되면서 곧바

급행철도 중 GTX-D노선에 여주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용역도 추진 중이다.

특히 하남에서 광주까지 신설

그 동안 수도권이면서도 발전도약에서 제외되고 농업의 연속성, 산업발전의 저해 등 낙후된 여주시가 현재 괄목상대 한 발전된 수도 동부권 으뜸도시로 급상승하고 있다.

3월 29일 10시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은 수도권철도교통성장계획 기자회견을 전격 발표했다.

이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경제회복 견인을 위해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 중심에 철도가 있다며,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여주시도 이러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여주시에는 경강선과 중부내륙선·수서~광주선이 경유하고 여주역, 세종대왕릉역, 가남역이 위치해있다. 여기에 추가로 강천역 유치를 추진 중인 만큼 여주시는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주시는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올해 착공해 2025년 말 개통될 월관선(월곡~관교)이 향후 성남 관교~여주신, 여주~원주신, 원주~강릉선과 연결되고 KTX 이음(260km/hr)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시점에 맞춰 상업·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여주역 복합환승센터만자 유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서부권 급행철도 계획 일련인 수도권 광역



(18km)하고 경기광주역~이천~여주 기존 경강선을 이용(41km)해 연결하는 여주시 안이 얼마 전까지는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7월 김윤덕 국회의원의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광역교통법 개정이 되면 GTX-D 노선에 인구35만의 원주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인천국제공항(김포)~서울~하남~광주~여주~원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주시는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여주시는 여주~원주 전철 복선화가 지난 해 12월 타당성 재조사 통과해 확정된 만큼 강천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올해 2월 1일 국토부에 강천역 신설을 건의해 곧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로 국가 철도정책의 방향과 변화를 따라가며 수도권 철도 교통 중심지로 성장을 차분히 준비해왔다고 밝

최근수/기자





#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초청 간담회 개최

### 강동길 위원장, 제주도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 자치경찰제 차질없이 준비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원들과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와 자치경찰 조례안 심사 내용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경찰청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자치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강동길 위원장과 소위 위원인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은 이철우 경정을 비롯한 제주자치경찰단 관계 직원들과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 국가경찰과 협력 우수 사례, 제

도적 보완점 등을 청취하고 서울시가 자치경찰 시행 단계에서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위원회는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4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 김경호 도의원, 지역농산물로 시민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제공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과 관련해 가평군 4개 단체가 공모해 4개 단체가 모두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9백만원, 새마을회 8백만원, 농특산물가공연구회 7백만원, 농업인단체협의회 5백만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 먹거리 공동체 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 성장, 복지 확대에 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을 증가한 반면,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널리 분포되어 있어 지역 주민생활 밀접성과 접근성이 용이

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활용해 먹거리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대응, 취약계층의 요구에 맞는 무료 급식, 도시락, 반찬,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 형태를 다양화했다.

공모사업은 지난 2월 26일부터 03월 12일까지 공모했는데, 김 의원이 가평군새마을부녀회와 농특산물가공연구회 등을 만나 공모를 제안해 이루어졌다.

지난 3월 19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101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가평군은 4개 단체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가평군도 향후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선정된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해 농산물 판매는 물론 취약계층 먹거리안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9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 상호시장 진출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경기도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대책,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에 따른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지원 등이 주요 논의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19 및 건설업의 단일화 등으로 인해 영세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토론회·공청회 등 계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의 개선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었기에, 명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은 "페이퍼 컴퍼니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

제가 되어왔던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한 도내 건설업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향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 강진군, 부패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강진군은 지난 26일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인허가 및 공사감독 업무 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실과소장 및 읍면장 교육에 이어 실시하는 두번째 맞춤

형 청렴 교육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 감사실 서은혜 주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공무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

게 전달해 공직자로서 필요한 지식을 강요했다.군은 작년 청렴도 평가 분석 결과 인허가분야 부정부패가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민원인 대상으로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청렴

서한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청렴교육을 매일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청렴 사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욱 군수는 "청렴은 그만큼 실천하기 어렵지만 공무원이 가야할 길이고 자세다. 올해 우리 군이 청렴도가 상승해 공직자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장길/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 성동구, 민간 손잡고 지인 프로젝트가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한다

이달 3월 31일까지 대상자 모집, 권역별 민간기관의 음식만들기, 취미활동, 원예, 공예활동, 정기동아리 등

서울 성동구가 이달 31일까지 '지인 프로젝트'에 참가할 1인 가구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인 프로젝트'는 '2021년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1인 가구 관리시스템'의 졸업말로 1인 가구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최근 5년간 1인 가구의 수가 매년 약 5%씩 증가하는 반면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1인가구가 많아 생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구는 이들을 위한 문제해결에 전면 대비했다.

이에 따라 구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민·관 협력의 체계를 구축,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13만 5870가구 중 전체가구 대비 42.2%를 차지하는 5만 7370가구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권역별 민간기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인 가구의 지역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캠페인을 포함해 음식 만들기, 취미활동, 1인 생활 참고서 제작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동별 로 원예, 공예 활동 및 밑반찬 만들기 모임과 함께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비슷한 관심유형을 가진 1인 가구의 정기적인 동아리 활동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소통과 관계가 끊어져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해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우울감·외로움 감소를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및 금융교육을 진행해 이들을 위한 심리방역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성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고독사 위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명칭	연락처
합심리도심센터	02-286-7211
합심리2동	02-286-7643
마 동	02-286-7255
사 동	02-286-7274
동 동 1동	02-286-7292
동 동 2동	02-286-7565
동 동 3동	02-286-7274
동 동 4동	02-286-7352
동 동 5동	02-286-7576
동 동 6동	02-286-7397
동 동 7동	02-286-7794
동 동 8동	02-286-7432
동 동 9동	02-286-7451
동 동 10동	02-286-7740
동 동 11동	02-286-7491
동 동 12동	02-286-7512
동 동 13동	02-286-7512

# 인천시, 청년 맞춤형 GIS 전문가 양성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든다.

청년취업공작소 연계 'GIS 전문가 양성과정' 국비지원 무료교육

인천광역시 청년주도형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취업공작소와 연계해 4월 16일까지 'GIS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GIS 전문가 양성과정은 공간정보 이론, HTML/CSS/JAVA,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응용개발 등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강의를 구성했으며 공간정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00% 국비지원 무료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GIS교육에는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웨이버스의 현직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에 나서 교육생에게 현직 종사자들과 소통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이 요구하는 실무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수료 후에는 포트폴리오와 입사지원서 작성, 모의면접 실습 등 실제 취업과 연계된 전문 취업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인천에 소재한 학교 졸업생에 해당하는 청년구직자로 IT 관련 분야 전공자 혹은 타 기관 등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김진성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산업인 공간정보산업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무경험 위주의 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년층의 자기주도구직활동 촉진으로 인천지역 내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취업공작소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다양한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주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상시로 제공해 교육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종남기자

# 은평구, 중학교 설립 지역숙원사업 시동

은평구는 녹번, 응암 지역 학생수 증가에 따른 중학교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관내 서부1, 2학교군 중학교 불균형 배치로 인한 지역간 부익부빈격차로 오렌기안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녹번, 응암 지역은 재개발로 8,800여 세대 공동주택이 신규 입주함에 따라 학생 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응암1, 2구역 내 학교용지 해제 당시 이 지역 중학생 인구는 1,840여명이었다 2020년에는 2,01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반편성 기준인원 27명을 기준으로 최소 6개 반의 신설 수요가 있는 것이며 최근 인근 중학교 최대 반편성 인원이 30명을

초과하고 있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녹번동, 응암동 지역 인구동향 추산 중학교 신입생은 2021년 660명에서 2026년 850명으로 타 지역 감소 추세와는 달리 증가세가 예상되며 향후 응암1구역과 응암4구역 추가 입주도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은평구는 2018년부터 녹번동과 응암동 일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관내 중학교 이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지역 의원들과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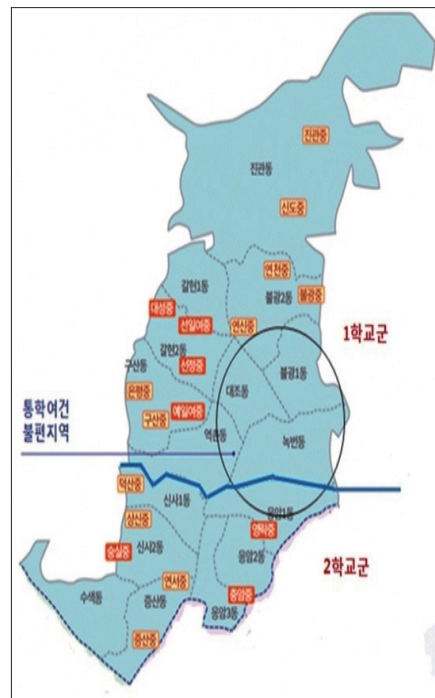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교육청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실무자중심의 협의체 운영 및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 3월부터

서부 1, 2학교군 학생 및 학교 균형 배치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등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중학교 이전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연구용역은 중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규모, 다양한 방식의 학교용지 발굴과 선정, 이전 대상학교의 여건 및 확정, 학교설립 비용추계 등 학교이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미경 구정장은 "서울시 대부분 지역은 학급당 인원수 감소가 예상되나 녹번동과 응암동 지역 학생수는 증가 추세로 우리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학교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 공룡학자가 온라인으로 들려주는 공룡이야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체험교실 열어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등 소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4월 18일 '공룡학자가 온라인으로 들려주는 공룡이야기' 체험교실을 연다.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화성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부터 각각 1시간씩 같은 내용으로 2회 진행된다.

'공룡열전' 저자인 박진영 고생물학자가 강사로 나서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에 대해 소개하고 공룡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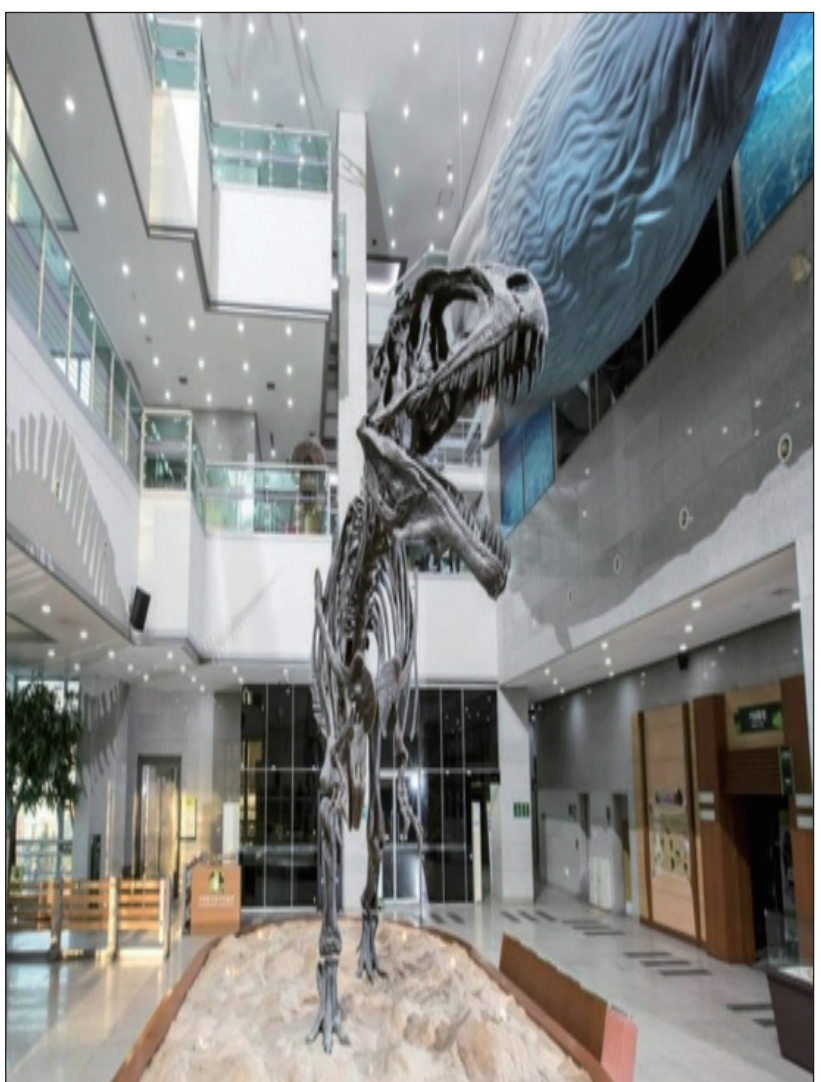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연간 회원은 4월 6일 오전 11시, 일반 회원은 4월 8일 오전 11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만원이다.

이남숙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체험교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룡과 더욱 친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물관은 역시 ZOOM을 활용해 4월 17일 오전 10~11시 '조류에 대한 기본교육과 쌍안경 조작 실습', 같은 날 오후 2~3시 '프레파라트 제작과 현미경 조작 실습' 프로그램을 연다.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쌍안경과 현미경을 빌려준 뒤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조상순기자

# 연수구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 창업점포 모두 위생등급 '최고'

30여명 전문가 풀 구성 메뉴 개발서 창업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연수구가 운영 중인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 공유형 주방에 입주한 연수구 청년외식창업 음식점 10곳 전업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제 최고등급인 '매우우수'를 획득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외식관련 청년정책을 발굴 실현하고 청년들의 성공적인 외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달전문 공유형 주방 10실과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고 올해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30여명의 역량강화 전문가 풀을 구성해 창업청년들에 대한 창업 인큐베이팅과 컨설팅, 프랜차이즈, 공공배달망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쳐 10명의 재능 있는 청년 셰프를 선발하고 올해부터 센터 내 공유형 주방에서 특색 있는 음식들로 청년창업을 지원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창업한 상태다.

연수구는 여기에 체계적 위생관리와 생활방역 실천으로 고객의 안전한 외식문화조성을 위해 최근 청년창업 음식점 10곳을 대상으로 식약처 위생등급제를 신청해 모두 '매우우수'등급을 지정 받았다.

위생등급제는 식약처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국가정책으로 3개 분

야 63개 평가지표로 HACCP을 인증하는 한국평가관리인증원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로 확장되고 있는 공유형 주방과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강화를 위한 위생기준 마련을 위해 10개의 공유주방에 대해 철저한 위생 관리체계를 적용·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양한 음식문화 콘텐츠 개발 적용을 통한 공유주방 기반 융·복

합 외식 창업 거점 구축과 함께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K-FOOD SQUARE 조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구정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청년창업자 중심의 배달외식업과 공유형주방의 위생 강화를 위해 철저한 기준 적용과 위생등급제 지정확산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 서울시, 수돗물 유충 예방·퇴치 방안 찾는다...31일 토론회 개최

## 전문가, 환경부 등과 함께 생물로부터 안전한 수질관리 강화 방안 공유·모색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충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부터 유충 발생 시 효과적 퇴치를 위한 대응법 등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1일 오후 3시 “상수도 생물 발생 대비 토론회”에서는 생물 전문가, 정수처리공정 전문가, 환경부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깔따구의 특성, 유충 사고 이후 달라진 서울시 수돗물 관리방법, 관련 매뉴얼 정비 등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한다.

아울러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31일 오후 3시~오후 5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유튜브 채널 ‘아리수TV’에서 생중계된다.

토론회는 모두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물전문가 박인실 전남대 해양기술학부 교수가 ‘깔따구 유충

의 생태적 특성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깔따구 유충의 형태적, 생태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정수장 유충사고에서 발견된 깔따구의 종류와 형태적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또, 유충 모니터링과 진단기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정수처리공정 전문가 맹승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유충 발생 국·내외 사례 및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그는 유충은 원수 및 모든 개방형 정수공정에서 유입 가능하고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급수시설인 저수조에서도 유입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각 관리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민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시민 체감형 수질 모니터링 등을 제안한다.

이상미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장은 ‘서울시 수돗물 유충 대응 연

구’를, 서대훈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은 ‘서울시 수돗물 유충 대응 계획’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은 지난해 서울물연구원의 수돗물 유충 대응 활동과 올해의 연구계획을 설명한다.

연구원은 자체 유전자분석 기술을 구축해 유충 민원발생시 종 분석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유충 특성연구, 제어방안, 생물최적제어 등의 연구계획도 발표한다.

서대훈 생산부장은 서울시의 수돗물 유충 대응 추진현황 및 대응계획을 발표한다.

시는 생산과정의 유충 유입 차단을 위해 창문·환기구·출입구의 방충망, 실내의 포충기, 에어커튼, 에어건, 위생전실 등을 정비했다.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빗물받이 배수로 물고임 등 관리방안과 함께 정수센터의 공정수, 역세척수, 활성탄지 및 배수지 등에 대한 생물의 활동 단계별 모니터링 매뉴얼과 운영

안도 발표한다.

특히 유충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 사항인만큼 환경부에서도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아울러 국립농업과학원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해 깔따구의 퇴치법, 효과적인 위생관리방법 등을 제안하며 전국 정수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론회는 박해철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김금임 환경부 사무관이 참여한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일부 지자체의 수돗물 유충 검출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수센터 운영관리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깔따구의 특성 및 국·내외 발생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환경부 등 유관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성동구, 주민이 만드는 생활 밀착 구정,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사업 최종방식 주민총회 변경으로 주민 주도성 강화,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학교로 주민 이해와 관심도 높여

서울 성동구는 다음달 4월 16일까지 2022년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의 사업의 발굴해 예산배분의 우선 순위 결정 등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해 제도이다.

구는 지난 해 온라인 회의 및 투표 병행으로 2,887명이 투표해 다양한 주민의견이 수렴되어 총 15억여 원의 예산규모로 51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 중 해당제2등은 지역의 유래를 담아 추진된 ‘옹벽에 도장골 이야기’를 그리다라는 주제의 벽화조성 사

업이 선정되어 ‘밋밋한 회색빛 옹벽이 랜드마크 길로 재탄생’했다는 주민들의 호평을 듣기도 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최종 선정방식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총회로 변경해 주민의 주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이달 3월 22일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참여자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

인다.

지난 해보다 교육 횟수를 늘려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기본, 심화 2개 과정으로 총 4회의 전문가의 사례 중심 강의와 함께 진행된다.

올해 공모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15억원이며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5,000만원 이내에서 주제의 제약없이 문화·행사, 자치행정, 복지·환경, 공원 등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집수된 제안사업은 동별 지역회의 심사 및 사업 추진부서의 적격성 검토 후 오는 7월 성동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8월 동별 주민총회 현장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서식을 받아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시각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었고 주민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아이디어가 생활밀착 행정의 기본”이라며 “올해도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도봉기적의도서관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 맞아 기념행사 개최

## 도봉구, ‘도서관에서 꿈꾸는 과학’을 주제로 4월 17일 세계 책의 날 행사 진행

도봉구 도봉기적의도서관이 오는 4월 제57회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 과학의 달을 맞아 4월 17일 단 하루, ‘도서관에서 꿈꾸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다채롭고 풍성한 독서·문화 행사를 준비했다.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은 출판물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한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됐으며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 이용자의 증대와 도서관의 중요성을 높이고자 한국도서관협회가 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설정한 주간을 말한다.

이번 ‘세계 책의 날’ 행사에서는 우주 쓰레기 이야기로 출발해 과학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과학자 이야기, 무엇이 반짝일까? 그림책 콘서트의 ‘무엇이 반짝일까?’ 그림책 콘서트의 ‘무엇이 반짝일까?’는 과학자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학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의 무료 상영을 마련했다.

또한, 인간과 환경이 두루 행복한 과학 발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림책 ‘아주아주 센 모기약이 발명된다면?’의 아트프린트 전시와 과학 관련 가로세로 날뿜퀴즈를 풀어보는 과학퀴즈 챌린지, 그림책 ‘아파트 공룡’과 연계한 입체 공룡 가면 만들기, 포토존 이벤트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공룡 가면 만들기, 천연 모기약 만들기, 관광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이용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환경

과 자연과학에 대한 흥미를 심어 주는 한편 가족 간 함께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한 모집과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책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자, 지식의 보고이다.

최광수/기자

#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 교통통제 변경 시행

## 여의도 봄꽃 개화시기 빨라짐에 따라 탄력적 조정 조치

영등포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취소하고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여의도로 봄꽃길 교통 통제 일정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꽃 개화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당초 4월 1일로 계획되었던 교통통제 일정을, 그보다 하루 앞당긴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변경해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여의도 봄꽃의 이

른 개화로 전국 곳곳에서 상춘객들이 밀집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제구간은 국회뒤편 여의서로 일대 1.7km 구간은 전면 통제되며 국회의원회관으로 올라오는 연결로 시점부→여의2교북단(L=340m) 평일 06~12시 통제해제

국회5문에서 둔치주차장까지의 80m 구간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출입이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상춘객 밀집 방지를 위해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을 위해 교통통제 일정을 하루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봄꽃 거리두기’에 많은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 안전을 달리는 동작, 노후건축물 실태조사 및 점검 추진

## 종합점수 75점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안내 및 제3종 시설물 지정

동작구가 오는 7월까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조사는 노후시설물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적절한 유지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의료·숙박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총 203개소이다.

토목·건축·구조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외부전문가와 함께 2인 1조를 이뤄 시설물의 용도·하중조건 등 주요변경사항 기능유지 가능 여부 보·기동·바닥판 등의 균열 주요 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 관리한다.

점검결과, 각 항목에 우수부터 불량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종합점수가 75점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보수·보강하도록 안내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구는 종합점수 75점 이상 90점 미만인 주의관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현장 재점검을 통해 제3종 시설물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달수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 붕괴와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충주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 주 2회 집중점검으로 미세먼지 관리 및 산불 예방

충주시가 미세먼지 관리 및 산불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정과·산림정책과·자원순환과 공동으로 3인 1조 13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농사 준비를 위해 영농폐기물 소각이 많아지는 3월에는 주 2회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와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페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엔 계도를 통해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에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 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수안보



온천리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산불진화대, 공무원 230여 명의 인력과 산림청 헬기 등 9대를 동원해 진화했으나 임야 4.4ha가 소실됐다”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논 밭두렁 태우거나 각

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 사천시, 전통시장 5일장·방문판매업체 방역점검 시행

사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전통시장 5일장과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4개 5일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홍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방역점검은 전통시장 5일장이 타 지역 상인들의 방문이 많은 것은 물론 소비자 간의 밀접도가 높

은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마련된 것. 아울러 시는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확진자 발생에 따라 현재 사천시에 등록돼 영업 중인 25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오는 2일까지 긴급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여부 점검과 함께 감염우려가 높은 홍보관 운영 자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관내 40여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언제든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상인,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 백군기 시장, 기흥평생학습관·용인미래교육센터 시설 점검

## 모든 시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강 적극 추진 지시

백군기 용인시장이 30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기흥평생학습관과 용인미래교육센터의 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기흥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의 평생 학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기흥구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1층에 마련한 공간으로 지난 15일 개관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629.7㎡ 규모의 기흥평생학습관에는 컴퓨터, 빔프로젝트, 미싱기, 조리시설 등이 설치돼 있으며 조리과정을 비롯한 기술실용,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정보화 등 6개분야 25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수지구청 내에 있던 용인미래교육센터를 기흥중학교 1층으로 이전, 기흥평생학습관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용인미래교육센터는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특색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들의 진로 상담·체험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시설 점검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백 시장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이 있는 곳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유실 바닥 난방 및 칸막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백 시장은 “기흥평생학습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용인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할 것”이며 “용인시민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랑중심 민생중심 의치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 광명소방서 구급대원 광명시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 참여 의왕시, '시니어액티브 매니저 운영' 업무협약체결

##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광명소방서(서장 박정훈)는 29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코로나19백신 접종과 관련 광명시, 경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소방서 구급대원들과 함께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접종될 수 있도록 실제 예방접종센터 내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을 가정하여 사전준비부터 이상 반응 환자 이송단계까지 포괄적 모의훈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점훈련 사항으로는 백신접종 동선 사전과역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환자 응급처치와 긴급 이송체계 ▲신속한 치료 지원 ▲단

계별 모의훈련 과정을 통한 철저한 검증 및 장애요소 제거 등이 다.

소방서는 모의훈련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법 등 모의훈련을 통해 발생된 문제점을 신속·정확히 보완해 4월 중 접종을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정훈 광명소방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백신 예방접종을 위하여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시 후송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시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순희 원종균/기자



## 의왕시, '시니어액티브 매니저 운영' 업무협약체결

### 어르신들이터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

의왕시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의왕시시니어클럽과 함께 '시니어액티브 매니저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들이터 활성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액티브 매니저' 운영사업은 놀이지도사인 '시니어액티브 매니저'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해 어르신들이터를 활용해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놀이형 맞춤 운동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왕시는 사업 운영 및 지원 총괄 의왕시체육회는 시니어액티브 매니저 활동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협력 의왕시 사랑채·아름채노인복지관은 여가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의왕시시니어클럽은 시니어액티브 매니저 모집 및 배치를 담당 하게 된다.

현재 여가프로그램 이용자는 사랑채·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선발된 시니어액티브 매니저 8명은 양성교육 이수 후 4월중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김상돈 시장은 "시에서는 종합적인 복지정책으로 어르신들이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놀이지도사인 '시니어액티브 매니저'를 적극 양성해 노인일자리도 발굴하고 노인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에 참여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원종균/기자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뿌리기' 공동체 4월 모집 시작

### 4월 8일 접수 시작, 15개 공동체 선착순 지원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뿌리기' 공동체의 4월 모집을 오는 4월 8일부터 시작한다.

'뿌리기' 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주민들의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시작해 오는 8월까지 매달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모사업 경험이 없고 공동체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3인 이상의 고양시민 모임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부터이며 선착순으로 15개 공동체를 선정해 모임·학습·벤치마킹·체험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4월 20일에 진행되는 '오픈테이블'에서 마을공동체 전문가인 '길잡이'에게 공동체의 활동 방향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오픈테이블' 과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줌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이승희 길잡이는 "시민들이 뿌리기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 마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라 본다."

이번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재미

첫 번째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뿌리기 마을공동체

준비가 아닌 이웃과 함께 생각하고 생각하고 의의있는 마을공동체를 시작하세요.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을공동체를 찾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최대 100만원 지원

**4월 20일, 뿌리기 오픈테이블에 오세요**

- 1. 이웃만나기**  
활동을 같이 할 이웃끼리 만나세요. 3명 이상이면 돼요.
- 2. 신청하기**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을공동체 참가 신청서에 적어주세요. 신청은 30명.
- 3. 컨설팅받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컨설팅을 받으세요.
- 4. 오픈테이블**  
4월 20일에 센터에서 열리는 오픈테이블에 참가하세요.
- 5. 활동하기**  
오픈테이블에서 들은 컨설팅과 센터 인력에게 따라 활동을 하세요.

신청서 작성 및 사전컨설팅 신청  
오른쪽 QR 코드를 찍거나 센터 홈페이지로세요  
www.goyang.center

공고기간 2021년 4월 6일 ~ 19일  
신청-접수기간 2021년 4월 8일 오전 10시 ~ 19일 15회 선착순 마감  
신청서 접수방법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신청일 경우 센터로 오셔야요.  
\* 제출 마감시간은 4월 19일 오후 4시입니다.  
\*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사전컨설팅 신청  
오른쪽 QR 코드를 찍거나 센터 홈페이지로세요  
www.goyang.center

공고기간 2021년 4월 6일 ~ 19일  
신청-접수기간 2021년 4월 8일 오전 10시 ~ 19일 15회 선착순 마감  
신청서 접수방법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신청일 경우 센터로 오셔야요.  
\* 제출 마감시간은 4월 19일 오후 4시입니다.  
\*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사전컨설팅 신청  
오른쪽 QR 코드를 찍거나 센터 홈페이지로세요  
www.goyang.center

사전컨설팅 기간 2021년 4월 8일 ~ 20일 오전  
오픈테이블 개최 2021년 4월 20일 오후 4시, 7시  
오픈테이블 구경하기  
4월 20일 오후 4시, 7시  
문의 12-360-2996

신청 후 필수사항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실무교육, 실연-상사-정산 컨설팅, 대외모임 네트워크 지원 마을공동체 전국모임, 사회적경제 상담 등  
더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www.goyang.center 참조하거나 전화 문의 바랍니다.  
뿌리기 오픈테이블은 8월까지 매달 세번째 화요일에 열립니다

문의 031-905-1228 | community1000@goyang.center 주회 주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있는 마을살이 1년을 보내고 공동체 활동을 길게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3월 뿌리기 '오픈테이블'에는 54개 공동체가 참여해 마을공동체 전문가 '길잡이'에게 활동 방향에 대해 컨설팅을 받았다.

또한 공동체 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등 화기애애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영기/기자

## GH,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BIM (건설정보모델링) 로드맵 본격 시동

GH(사장 이현욱)는 스마트 건설기술인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안정적인 도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GH-BIM 로드맵'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BIM 기법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계품질 및 생산성 향상, 효율적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이다.

지난 해 GH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빌링스마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관 자문단 구성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기업 최초로 유지관리 단계를 고려한 BIM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중장기 계획인 GH-BIM 로드맵을 발표하여 건축분야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는 GH-BIM 로드맵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해 당초 일반건축물 분야에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주택분야 및 단지분야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GH 내 단계별·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BIM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GH는 2023년까지 점층적으로 GH-BIM 로드맵을 확장하여 전 사업지구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며, △단지분야 BIM 가이드라인 수립 △BIM 표준 라이브러리 구축 △BIM 클라우드 및 협업 플랫폼 구축 △BIM 전문인력 양성 등 4차 산업시대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도할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욱 GH 사장은 "GH-BIM 로드맵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BIM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설기술 토대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 수원시, 상춘객 집중 방문 지역 방역관리 강화

### 광교공원, 서호천, 만석공원, 황구지천, 팔달산, 화서·장안공원, 여기산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8개소 대상

수원시가 상춘객이 집중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광교공원 서호천 만석공원 황구지천 팔달산 화서·장안공원 여기산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8개소가 대상이다.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각 구 보건소는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공원 내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방역한다.

특히 지속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계도·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 경기도청 봄꽃축제, 매화꽃축제, 밤밭골 청개구리 축제, 어린이날 어울림한마당, 어버이날 기념식 등 봄 축제는 취소했다.

화성행궁은 단체관광객 입장을 제한하고 화성어차·국궁체험장은 좌석·사대 거리두기를 한다. 6월까지 전세버스 안전 점검도 시행한다.

행한다.

비정기 운행차량의 관광 예약 현황을 파악해 안전 점검을 하고 전세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으로 엄중 처벌한다.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족·지인 등과 소규모 여행을 할 때는 여행 전 발열을 체크해 일행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산행·야외활동을 취소해야 한다.

대형버스보다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소규모로 이동해야 하고 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차 연장하고 기본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다중이용 시설·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가 목적인 시설과 음식점에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유증상자가 있으면 바로 퇴근 조치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가능한 인원수를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추가된 기본방역 수칙은 계도 기간인 4월 4일까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점검도 지속해서 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 인원은 계속해서 제한된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한다.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미술관은 1일 4회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복지시설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실내의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44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용정원의 30% 이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수강생, 강사와 협의해 동장이 대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비밀·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거나 상견례를 할 때는 8인까지 모임 수 있고 만6세 이하 아이 동반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최정근기자



**상춘객 집중 방문 지역 방역관리 강화**

대상: 상춘객 집중 방문 지역(8개소) | 기간: 4월 4일(일) ~ 4월 18일(일)

대상 지역: 광교공원(광교마루길), 서호천, 만석공원, 황구지천, 팔달산, 화서·장안공원, 여기산공원, 광교호수공원

\*축제 취소: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 경기도청 봄꽃축제, 매화꽃축제, 밤밭골 청개구리 축제, 어린이날 어울림한마당, 어버이날 기념식 등

\*봄철 나들이 지역 산책로 수시 관리

수원시 제공

## 이재명, “소비자권익 강화하고 공급자가 부당이익 취하지 않는 시장경제질서 자리잡아야”

### 29일 경기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권익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지연 분쟁을 함께 해결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비스나 생산품을 공급할 때 분쟁이 생기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기대를 못 하게 부적절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 기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면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억울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공급자들이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가 신속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분쟁 해결과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제공 등에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성과를 많이 이뤘다”며 “특히 최근 경기도 1,400여명의 기숙사비 21억여 원의 환급조치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 공유 및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소비자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지난해 9월 출범한 바 있다.

도와 소비자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된 기존 전문자문단 6명을 12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자문단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한창 문제가 된 음식 분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234건의 합의 조정을 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른 경기대학교 기숙사 미사용 환불 지연 분쟁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지난해 1,477명이 기숙사비 21억1,400만원 전액을 환불받도록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헬스장 계약해지 등 피해 다발 민원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해 생활 속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소비자피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공공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국회의원회장과 국중현 경기도의회 의원,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금융이나 의료 분야 소비자 피해에 관심이 많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주 심한 업종에 관해서는 손해 배상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중현 의원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의 공정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홍정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문제가 1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경기도와 소비자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 구리시,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보물찾기’ 챌린지 실시

### ‘소소하지만 확실한 양성평등’ 주제, 일상 속 양성평등 사례 등 블로그 게시

구리시는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 주관으로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챌린지를 진행한다.

소확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양성평등 사례 또는 문구, 사진, 영상 등을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면 된다.

구리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관과 사회단체 등이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양한 양성평등의 사례 등을 공유하며 일상 속 고정관념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별적 인식 개선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유성연 회장은 “다양한 연령의 구리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양성평등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챌린지가 구

리시민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해 남녀 모두가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조성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 농촌 체험 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 고윤환 문경시장, '지방자치복지대상' 수상

### 함께 나누고 함께 채워가는 행복중심 복지문경

고윤환 문경시장이 지난 3월 25일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복지대상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것이다.

본 상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신설된 것이며 광역단체장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초단체장에는 고윤환 문경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황명선 논산시장이 선정됐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2012년 취임과

동시에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문경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처우개선에 앞장섰으며 민이 주도하고 관이 뒷받침하는 진정한 민관협력 복지시스템 구축과 공모사업·시범사업 등을 통한 예산 확보로 사회복지 예산 증액, 시설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그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렇게 큰 의미가 담긴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시민이 행복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신 우리 문경시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사명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만식기자



# 평창올림픽 드림팀, 전국체전 개·폐회식 이끈다.

### 이도훈 홍익대 교수, 전국체전 연출감독 위촉

경상북도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개최의 주역"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고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제작단장을 맡았던 이도훈 홍익대학교 교수를 연출감독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3월 24일 전국체전 준비상황보고회 참석을 위해 구미시민운동장을 찾은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개·폐회식은 체전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올림픽의 노하우를 살려 성공적인 개·폐회식 연출과 체전 붐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장관,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LG상사 부회장을 지냈으며

이도훈 교수는 (취재일기) 출신으로 'APEC KOREA 2005 정상만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폐막식' 등 국제행사를 연출했다.

특히 두 사람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제작단장으로 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을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판타지 쇼로 만들어 냈으로써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이희범 대표와 이도훈 교수가 전국체전 개·폐회식을 이끌어 주시길 감사하다"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되살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이 과학과 문화가 하나 되는 감동의 축제 가 되도록 열정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 옛길박물관 특별기획전 '나의 고향, 문경의 문화재' 개막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옛길박물관에서는 2021년 특별기획전 '나의 고향, 문경의 문화재'를 오는 3월 31일에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옛길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인 '사근도형지안沙斤道形止案'과 '문경옥소고聞慶玉所稿'의 문화재 지정을 기념하는 대국민 공개의 일환이다.

'사근도형지안'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역 관련 형지안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에 소장된 형지안이다.

현전하는 형지안은 불과 4책으로 '김천도형지안', '송라도형지안', '자여도형지안', '사근도형지안'뿐이다.

김천도, 송라도, 자여도 형지안은 모두 일본에 있다.

'사근도형지안'은 옛길박물관에서 발굴한 국내 유일의 역인 장부이며

역리驛吏·역노비驛奴婢 뿐만 아니라 술거인率居人과 보인保人的 사항까지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어 당시 역의 인구와 신분구조, 역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32호로 지정됐다.

'문경옥소고'는 옥소 권선 선생의 필사본 문집이다.

그는 한양의 유목한 명문 사대부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관직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문예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중년 이후 문경 화지동에 거주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그것이 '옥소고'이다. '옥소고'는 문경본과 제천본 두 가지가 전해진다. 제천본은 필사본 2종과 석인본 1

종 46책이 이미 201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4호로 지정됐고 문경본은 문경을 담포리 안동권씨 시중공과 화천군 연합공 중종이 옛길박물관에 기탁한 17책이다.

문학·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사 원본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를 받아 지난 2020년 12월 '문경옥소고'라는 명칭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54호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2004년과 2006년에 발굴된 문경평산신씨묘출토복식·문경최진일가묘출토복식도 약 10년만에 관람객 앞에 선을 보이고 문경새재아리랑 및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 수도 오랜만에 전시된다.

최만식기자



# 제12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예선 참가 신청 안내

군위군은 지난 29일 '제12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예선 참가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민족 문화의 보고인 삼국유사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퀴즈대회이다.

2009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해마다 개최되었던 대회는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오는 6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본선은 예선에서 선발된 본선진출자 9명을 대상으로 8월 28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1등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본선진출자 9명 및 교사들에게 상장도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최태성 강사가 본선대회 문제 출제자로 나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브랜드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세기기자

## 제12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참가대상 전국 고등학생 누구나

**예선 <비대면 온라인 퀴즈대회>**

일시 |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16시 30분

접수방법 | 군위군청 홈페이지-삼국유사퀴즈대회-참가신청 (www.samgukyuusa.com) 접수기간: 3월 29일(목) - 5월 31일(목)

필수사항 | 유튜브 생중계 문체부 영상물 볼 수 있는 스마트 기기 1대와 단말용 체크카드 스마트 기기 1대 필수

※ <학교 단체 참여시>  
 <예선 대회>는 학교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가능  
 ※ 참여자 전원 참가선물 증정

**본선**

일시 |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장소 | 경북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구분	종류	인원	상금
우등학생	교육부장관상	1명	100만원
우수학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70만원
선박예선상	경상북도교육청장관상	1명	50만원
진출대상	군위군수상	1명	50만원
최우수학생	군위군수상	5명	30만원
최우수교사상	최우수 교장교사상	1명	30만원
최우수교사상	최우수 교장교사상	1명	20만원
최우수교사상	최우수 교장교사상	1명	10만원
최우수교사상	최우수 교장교사상	1명	30만원
최우수교사상	최우수 교장교사상	1명	20만원
최우수교사상	최우수 교장교사상	1명	10만원

문의-군위군청 054-380-7323 / 퀴즈대회 사무처 053-381-8071

# 영양군의 새로운 미래상 정립을 위한

###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 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3월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영양군의 미래 발전방안을 제시할 '영양군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향후 10년 간 영양군을 이끌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정책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새천년 지속가능한 영양군 농업·농촌 만들기 영양군 미래 성장 산업 육성 스마트 도시 영양 만들기 사통팔달 영양군 만들기 영양 지오프레일 구축 영양군 교정시설 유지 미세먼지 프리 준조성 영양 보건의료원 건립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교육 인프라 구축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 등 10대 핵심 사업 계획을 설정하고 미래 발전 전략과 부문별계획 수립안에 중점을 둔 용역 계획안을 보고했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군 2030 중장



기 발전계획은 군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인 만큼 군민이 만족하고 공

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 칠곡군농업기술센터, 꿀참외송·참외이모티콘 제작 배포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참외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꿀참외송'과 '참외이모티콘'을 제작했다.

꿀참외송은 칠곡군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아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율동과 노랫말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또 참외 이모티콘 '꿀참이' 캐릭터 24종을 개발해 칠곡군 공식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무료로 배포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코로나 시대 농산물 대면 홍보가 어려워진 만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경남도,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집중공모시행

###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형, 청년참여형 등 4개 분야 총 170억원 공모

경상남도는 3월 31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2022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공모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집중공모 기간 동안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공모 제안을 할 수 있다.

집중공모 기간 이후에도 수시접수가 가능하지만 접수시기에 따라 다음해 제안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총 공모 규모는 170억원으로 4개 분야별로 도정참여형 50억원, 도-시군 연계형 50억원, 청년참여형 10억원, 주민자치형 60억원이다.

도정참여형은 도 전역 혹은 최소 2개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으로 사업당 5억원 이내에서 도-시군 연계형은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당 3억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참여형은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당 2억원 이내 주민자치형은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당 2,000만원부터 최대 8,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주민참여예산 공모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민자치형 분야 신설을 꼽았다.

60억원이라는 큰 공모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좋은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예산학교 운영, 주민자치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체감형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제안된 사업은 도 및 시군 소관부서의 검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 도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8월 말경 최종 선정된다.



다만, 주민자치형 사업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2년 당초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도의회 2022년 당초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도는 선정된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동체협력지원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중심의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본인이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완료되었는지를 제안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 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공모에 앞서 도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1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2월에는 도-시군 담당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지역연구회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연간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690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의 52%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제안사업의 질적 향상과 선정사업의 사후관리를 꼽았다.

공모 유형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주민자치형, 도-시군 연계형, 청년참여형, 도정참여형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최광용/기자

# 김해시,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운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 불법소각 잔재물 등 집중수거

김해시는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 및 폐농약병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A급 140원/kg, B급 100원/kg이고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은 플라스틱 농약병은 1600원/kg, 농약병지는 3,680원/kg이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우리시에서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며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재활용 가능한 농촌폐비닐로는 흙과 이물질이 제거된 로텐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이 있고 재활용 불가능한 농촌폐비닐로는 반사필름, PVC 혼합비닐, 차광막 등이 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대상 품목으로는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가 있다.

비닐류는 재질별로 구분해 마을공동집하장에 배출하고 폐농약용기는 '농약' 표기가 있는 용기나 봉지를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해 한국환경공단 부·울·경 사업소로 수거 요청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 중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및 거름포대는 이물질이 없도록 해 종류별로 구분해 모은 후,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수거요청하면 마을단위로 1톤 이상 수거 가능할 시 수거한다.

기본적으로 각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상기 내용과 같이 수거되거나 올바른 배출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며 동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우리시는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동안 폐비닐 17.8톤, 폐농약용기 1.5톤, 기타 영농폐기물 26.3톤을 수거해 총 45.6톤의

운영실적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재활용이나 올바른 방법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불법 매립·소각·방치 등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농촌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된다.

우리시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지원사업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되는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EPR 품목 또한 최대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불법 매립·소각·방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창원시, 황사대책 상황반 가동...시민안전대책 적극 대응

### 도로 살수차 운행, 재난안전전광판 등 활용 시민 행동요령 안내 등 조치

창원시는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황사대책 상황반 가동 등 잘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창원시에 황사 및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됐다.

황사경보는 황사로 인한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 8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3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발령된다.

29일 오후 1시 기준 창원시에서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가 800 $\mu\text{g}/\text{m}^3$  이상으로 측정됐다.

창원시는 오전부터 황사로 인한 먼지농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대형 노면 살수차 5대를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변에 물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설치된

클린로드시스템도 가동을 시작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 4개소 및 관급공사장 58개소에 대한 작업시간 운영 단축·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10명의 민간환경감시원을 동원 대기오염을 야기 시키는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가지 주요 재난안전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와 행동요령을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전 실과소, 읍면동에는 황사발생시 대응요령을 긴급 시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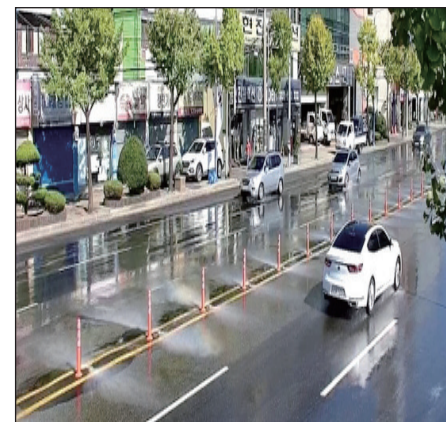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에 대비해 각 구청별 대응대책을 사전 점검 했다.

향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이 실시되며 의무사업장 및 비산먼지 배출 신고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또는 운영시간 조정·단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준수 환경정책과장은 "중국발 황사영향으로 고농도 먼지가 지속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섭취를 당부했다"며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와 황사대응 행동요령을 숙지해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 울릉군, 코로나19 피해 지원

울릉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릉군은 2020년 2월부터 7월 까지 1차 감면을 추진해 1억 7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차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은 기존 사용·대부요율을 인하여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상업·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감면으로 총 59건, 약 2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임대료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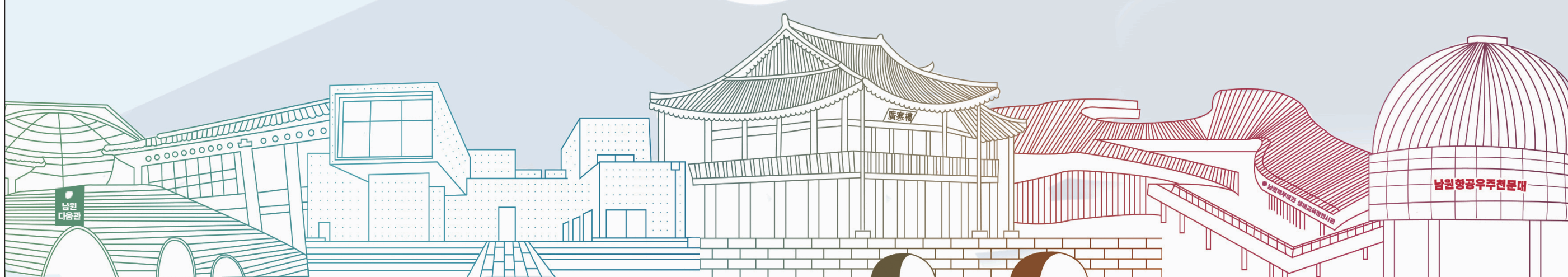
부터 11월 30일까지로 각 재산 관리 부서별로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 '국회의원·지방의원 특권 줄이기 전 국민 캠페인 및 서명운동 출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이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국회의원·지방의원 특권 줄이기 전 국민 캠페인 및 서명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신연은 기자회견을 가지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민주정을 채택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 각 계층 및 법적 권리에 따라 응분한 몫을 필요에 따라 동등하게 분배하는 공평·공정한 정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로부터 일방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소극적 방관자적 민중의 힘은 한계에 와 있고 비판력을 상실한 일부 편향언론과 정부 지원금에 길들여진 일부 시민단체는 침묵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에도 공기업인 한국도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의한 땅투기 의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를 넘어 허탈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개탄스런 공직·공익 비리의 현실이다.

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의원이다. 선출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하게 된다.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월세 급여가 연7억9,254만원이므로 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800억원 가량 절감되고, 의원 보좌진 인건비 연1,467억을 절반만 줄여도 연750억원 가량 절감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강력하게 국민의 고통스런 삶의 여정에 국회의원(지방의원)들도 살을 깎는 자성으로 우리단체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국회의원 보좌진 50% 감축, 국회의원 정수 200명 축소, 불필요한 세비 100% 반납 등 국회의원 특권 200여 가지를 반납으로 줄여 국민혈세를 절약하라!

**둘째**  
선출직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각 계층 전문가 명예직 전환으로 지방행정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예산절감과 지방보좌부패세력을 척결하라!

**셋째**  
금고이상형 확정 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출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넷째**  
금고이상형 확정 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출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따라서 특권을 배제하고 정의롭고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수,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선출권력들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진정한 공익은 망각하고 사익과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며 프레임, 편가르기, 퍼포리즘 정치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둔화시키고 비판력을 빼앗아 정치체제 안정을 꾀하는 우민(愚民)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민주제 도하의 국민은 실제 영향을 미칠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투표(5년 또는 4년 만에 하루)와 같이 간헐적 피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특별한 촛불혁명적 상황이 아니면 무력한 공중, 방관자로서 존재하게 된다.

전통 민주주의의 전능한 시민의 개념은 허구가 되고 공적 관심사 해결의 현실적 한계 속에 우민(愚民)으로 취급받는 나약한 구경꾼이 되어 국민의 심부름꾼인 선출직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 하며 부패, 무능, 특권에 안주하고 있다.

IT기술과 빅데이터, 인터넷 발달 등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이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는데도 국민의 혈세로 도가 넘는 보좌관을 거느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과 지방보좌관권인 지방의원들이 되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중에도 수익을 낸 업종의 이익을 공유하지는 이익공유제 도입이 논의되는 현재에도 국민의 혈세를 고박고박 쟁겨가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자정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현실에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국민 운동연합은 정치중립적이며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로 우리 세대의 공직공익비를 척결하고 후손들에게는 청렴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감시와 특권 배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입법 권력에 대한 특권 축소 및 배제로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자금, 통일비축비용으로 전환 사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전국 22개 광역본부, 100개 시·군·구 지부, 2,000여 회원은 온오프라인 동시 전 국민 서명운동과 캠페인, 집회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 심부름꾼이다.

2021. 03. 29.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총재 나우인  
중앙본부 임원 및 기획단 / 서울총괄본부 / 부산총괄본부 / 인천본부 / 광주본부 / 대구본부 / 울산본부 / 경기북부본부 / 경기남부본부 / 경북총괄본부 / 충남본부 / 전북본부 / 전남본부 / 경남동부본부 / 경남서부본부 / 제주본부 전국 100개 시·군·구 지부 2,000여 회원 일동

이남출/기자

# 임실군, 새마을지도자 농촌 어르신 효자로

### 신덕면 시범사업지 특수시책 추진...노약자 및 어르신 생활불편사항 해결

임실군이 새마을단체를 활용해 농촌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농촌 마을의 고령층 어르신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부르르 간다 어보맨'사업에 신덕면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어보맨 사업은 그동안 존재감이 미약했던 새마을단체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방문해 해결해 주는 마을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신덕면은 최근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르르 간다 어보맨'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별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들은 어보맨으로 새롭게 변신해 타지에 살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어보맨은 마을 어르신들의 일상에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어르신 가정의 전화기에 어보맨의 핸드폰 번호가 입력된 단축번호를 누르면 즉시 방문한다.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TV 리모컨 오작동이나 전구 교환, 소규모 주택 보수, 집안청소 및 세탁 봉사 등 단순한 문제는 즉시 해결해 드린다.

어보맨이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

이거나 경제적인 부담이 큰 보일러 교체, 도배 및 장판교체, 집보수, 수도파손교체 등의 중대한 불편사항은 면사무소에 보고해 임실군의 더살복지단 및 행복보장협의체와 연계,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군은 이 사업 추진을 통해 새마을단체의 존재감이 커지고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마을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보맨으로 활동하면서 마을의 어르신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공경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신기식 신덕면 새마을지도자 회장은 "새마을지도자가 부녀회장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을 보살피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며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최근 농촌 마을의 고령화와 자녀들과 떨어져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서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보맨이 자녀들을 대신해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어르신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김승일/기자

# 코로나 블루 극복 강진읍 상권활성화 활력증진 상인교육

## 주 2회, 아트 테라피를 통한 코로나 블루 극복

강진군은 오는 4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강진읍 상인회 7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상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아트 테라피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넥스트로컬 청년창업사업을 통해 강진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업팀인 '아트랩소디'가 교육을 진행해 강진읍 상권활성화와 청년창업팀이 연계한 첫 사업으로 추진한다.

군은 아트테라피를 통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리적 우울과 무기력감을 미술 교육활동을 통해 치유하고 교육생간의 심리상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4월 6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에 진행되며 한 그룹당 10명에서 15명씩 5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당 2회씩 실시한다.

먼저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기 위한 '자화상 그리기'를 통해 자기 인식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지지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또 '나의 소망을 피워내는 연꽃 만들기' 교육은 모네 수련연작을 모티브로 현재 상황을 긍정적 미래에 투사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라나는 연꽃 만드는 작업으로 소화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우울증 등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활력을 증진해 활기찬 강진을 상점가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h, My First Art Therapy**

4.6(화) - 5.7(금)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내 삶을 위한 아트테라피하는 날!

<b>진행일정</b>	<b>프로그램내용</b>
• 1기 4/6(화), 4/9(금) 15시-17시	• 화요일 나의 자화상 그리기
• 2기 4/13(화), 4/16(금) 15시-17시	• 금요일 나의 소망을 피워내는 연꽃 만들기
• 3기 4/20(화), 4/23(금) 15시-17시	
• 4기 4/27(화), 4/30(금) 8시30분-10시30분	
• 5기 5/4(화), 5/7(금) 8시30분-10시30분	

<b>진행장소</b>	<b>주최</b>
강진군 도서관 본관 2F 시청각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진군

<b>접수방법</b>	<b>주관</b>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통합예술교육 연구소 아트랩소디

김장길/기자

# 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과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 발표

##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확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북도가 29일 2021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과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6개 기업을 심사해 사회적 목적 실현, 사업의 지속 가능성,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 마인드, 향후 인증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등을 평가,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9개 기업은 일자리창출, 마케팅, 판로지원 등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인프라 지원 등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도 발표했다.

전북도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참여 근로자의 고용유지,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의 필요성, 신청내용의 시행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분야는 30개 기업, 108명이 신청한 가운데 72%인 78명을 배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과 신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4월 초 공모할 제2차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서 다시 한번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개발비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이번 심사에서 2021년도 사업비 7억1백만원의 전액 지원했으며 인프라 지원의 경우, 중복지원 및 사업계획 미비 등을 제외하고 신청금액의 81.5%인 1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도는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 실시하고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 등을 위반할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업내용,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전라도 의향나주,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에 역량 결집

### 범시민서명운동, 의병의 날 기념식 참석 등 박물관 건립에 전방위 지원 활동

나주시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민·관 역량 결집에 나선다.

나주시는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의 건립 지원을 위해 구성된 '범시민추진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국난극복에 앞장선 남도의병의 충혼을 기리고 정의로운 역사를 일궈온 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전라남도 역점 사업이다.

도는 지난 해 7월 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 도내 8개 시·군 중 나주시 공산면 영상테마파크 일원을 사업대상지 1순위로 선정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설립 사전평가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물관 건립은 체험·교육·문화시설과 함께 영상테마파크 일원 부지 36만3686㎡에 연면적 8300㎡ 규모로 총 440억원을 투입, 내년부터 2024년까지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범시민추진지원단은 전국 14개의 병문종과 광주·전남지역 등 5개 독립운동단체를 비롯해 나주문화원, 나주·남평향교, 나주시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청년회의소, 정찬균 나주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행정지원단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 출향 향우, 언론인 등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총 467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지원단 공동단장으로는 강인규 나주시장, 김영덕 시의회의장, 최일 동신대총장, 이민준 전남도의원, 리명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각각 위촉됐다.



이날 발족식은 공동단장 5인과 신정훈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단과 지원단 대표협의체, 지지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의병종합연구 문중 설명회, 사업추진현황보고 개회사, 의병문중 대표 선언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라도의 탄생지 나주의 명성은 국가를 지키다 쓰러져 간 의병 선조들의 구국과 충혼정신에서 비롯된 만큼 전라도 의병정신을 미래가치로 창출하게 될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전라도 의향 나주의 위상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의병문중과 독립운동단체, 출향 향우, 각계 기관·사

회단체 등 지역민 모두가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에 이어 임진왜란 발발 후 호남 최초 의병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건재 김천일의 후손인 언양김씨 문중 김남전 회장은 지원단 대표로 발족식 선언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호남 의병의 희생과 정신이 과거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내일과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라도 역사의 주역으로서 나주인의 지혜와 의지를 한데 모아 박물관 건립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며 결의에 찬 선언문을 낭독했다.

지원단은 전라도 천 년 역사의 중심이자 시대를 불문하고 국난 때마다 수많은 우국지사를 배출해

구국에 앞장서온 전라도 의병의 성지, 나주시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활동에 나선다.

특히 남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6월 1일 개최 예정인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 행사를 비롯한 부대행사 참여 지원 등 박물관 건립의 추진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오는 6월 1일 금성관 일원에서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나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올해 의병의 날 기념식은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만기자

# 전남8호 민간정원 하늘빛수목원, 봄맞이 싱그러운 튜립 축제 개최

장흥군 하늘빛수목원은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제7회 튜립 축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장흥군 용산면에 위치한 하늘빛수목원은 약 10만㎡ 규모의 정원에 편백숲, 생태연못, 글램핑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늘빛수목원 내에는 300여 종의 수목과 1000여 종의 야생화 및 초화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수변생태 학습, 승마체험, 어린이 꽃나무 심기 체험 등 갖가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하늘빛수목원은 전남 제8호, 전국 22번째 민간정원으로 지정됐다. 수목원 곳곳에 조성돼 있는 정원에는 알록달록한 튜립이 만개해 관

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튜립뿐만 아니라 1천여 종의 꽃나무와 야생화가 수목원 곳곳을 수놓으며 화사한 봄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봄빛이 선명한 수목원 뒤편으로는 편백숲이 넓게 펼쳐져 있어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편백숲 한쪽으로는 글램핑장이 들어서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주재용 대표는 "튜립을 비롯해 다양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눈부신 봄기운을 떨치고 있다"며 "하늘빛수목원에서 봄날의 화사함을 느껴 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 전남도, 글로벌 해상풍력·바이오 기업 유치

### 29일 세아제강·박셀바이오 등 3개 기업과 1천150억 투자협약

전라남도는 29일 오후 도청 서재 필실에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업체인 세아제강 등 3개 기업과 1천1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대면 협약식은 기업 대표와 해당 시장·군수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협약에 따라 ㈜세아제강은 울촌산단 순천공장에 800억원 규모의 증설

을 통해 둘레 8m, 길이 100m에 이르는 원통형 강관 하부구조물 생산 체계를 갖춘다.

지난 2월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투자를 결정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유럽 등 전세계 해상풍력 하부구조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아제강은 총 36만 5천㎡ 부지의 순천공장에서 제작한 철탑형 해상풍

력 하부구조물을 현재 프랑스와 대만에 수출하고 있다.

(주)윈드에너지는 나주 신도산단 3천㎡ 입지에 50억원을 투입, 공장 지붕 등 도시에 설치 가능한 소형 수직풍력 발전기 제조 공장을 전국 최초로 설립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속한 상용화 확산 등을 통해 '생활속 풍력발전' 전남 브랜드화 구축에 나선다.

윈드에너지는 한전 자금을 개발

한 풍력발전기 원천기술에 지역 연구기관의 핀셋지원을 통해 창업, 산·학·연 협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박셀바이오는 화산 생물 의약품산업 단지 1만 3천㎡에 항암면역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생산 설비 단지를 조성한다.

항암면역치료제의 대중화를 목표로 전남에서 성장한 업체다.

이준행 박셀바이오 대표는 "암 정복을 위한 면역치료제를 개발해 '인류 생명 연장'이란 기업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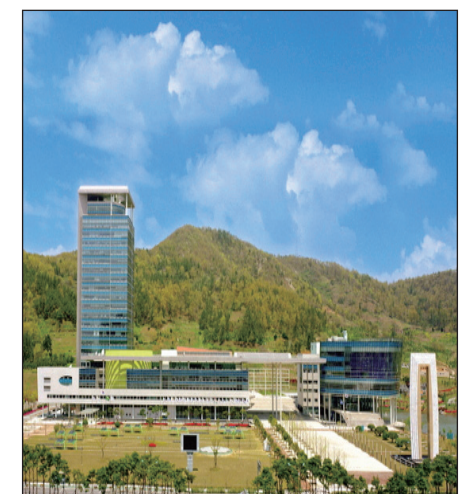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월 전남형 상생 일자리 선포식에서 전남은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8.2GW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도약을 이끌어달라"는 책무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며 "협약 기업도 이런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1등 기업의 목표를 달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기업 보조금 최대 1천억원, 기반·편의시설 지원 등 전국 최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지난해부터 마련하고 올해 초 투자기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기업 하기 좋은 전남 환경 조성을 통해 첨단 우수기업 유치를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 7기 이후 지금까지 741개 기업과 19조 1천84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택트 투자설명회 등 맞춤형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김영만기자



#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 '횡성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광사업 육성 나서

횡성군은 최근 '횡성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관광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지역 발전의 대안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다.

횡성군은 그동안 종합개발계획의 부재로 관광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지리적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형 관광도시에 비해 불리한 측면 또한 갖고 있다.

횡성군은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는 한편 횡성의 관광 이미지를 확립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횡성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 횡성 10년 관광발전 로드맵 구축에 나서게 됐다.

횡성 관광산업의 개발 방향 및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횡성군 관광만족도 및 수요조사가 실시 됐으며 읍·면별 관광개발 여건 고려를 위해 2020년 11월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 또한 이뤄졌다.

이렇게 완성된 '횡성 종합관광개발계획'의 비전은 '새롭게 도약하는 청정관광의 메카, 횡성'으로 정해졌다.

'청정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관광 거점도시'를 목표로 2030년 연간 관광객 400만명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3단계에 걸친 개발전략도 제시됐다.

1단계는 횡성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구축, 2단계는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대표관광상품 개발, 3단계는 관광 목적성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전략이다.

새롭게 제시된 관광 브랜드 및 슬로건은 "가로별 횡성기행 - UFO 타고 떠나는 나만의 감성여행"이다.

횡성의 옛 지명으로 하늘의 강이라는 뜻을 품은 '횡천'에서 착안해 별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라는 감성적 이미지에,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휴식처라는 의미를 담은 UFO를 접목, 횡성의 지역 정체성과 새롭고 독특한 관광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바람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3개 테마의 대표관광상품 개발 제안도 이뤄졌다. 먼저, '청정자연 힐링 UFO'이다. 도심에서 벗어나 횡성의 청정자연에서 쉬고 치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전략으로는 여행과 일상이 함께하는 체류형 힐링명소를 육성하고 태기산, 횡성호수 등 횡성이 가진 천혜의 자연자원의 역량을 강화해 생태관광의 명품화를 꾀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의마을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횡성 호수길 상품성 강화사업, 별이 흐르는 섬강 도보 여행길 테마경관 조성사업 등이 있다.

두 번째 테마는 '다이내믹 꿈 UFO'이다.

이모빌리티 산업, KTX 역세권 개발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융복합도시관광 육성을 추구하며 횡성관광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지방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다이내믹한 레저 체험 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횡성호수 레저관광자원 개발 사업, 루지체험장 관광 활성화 사업, 임도활용 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이 있다.

세 번째 테마는 '감성 아지트 문화 UFO'이다.

태기산성, 태종대, 노구수 등 '왕'에 얽힌 전설이 숨 쉬는 역사적 장소와 풍수원 성당, 잠천 기념관 등 근대 역사를 간직한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육성,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횡성한우, 안흥전빵, 둔내 토마토, 횡성 더덕 등 지역 특산품의 관광 상품화로 식문화 관광을 보다 확대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네덜란드 테마관광지 사업, 안흥전빵 모락모락마을 활성화 사업, 둔내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등이다.

개발 사업 등이다.

횡성군은 관광 브랜드 구축, 대표관광상품 개발, 관광진흥사업의 65개 전략사업 시행에 총 2,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 예산사업을 적극 활용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2021년부터 5년간 횡성군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신규 관광명소를 육성하면서 2031년 이후부터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한다.

현재 250만명 수준의 관광객 총량을 2030년까지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부가가치를 5% 이상 성장시켜 나가겠다" 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원/기자



# 맹정호 서산시장, "서산민항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 올해 예타 포함 및 기본계획수립 착수 목표

맹정호 서산시장의 서산민항 건설 초기 추진을 위해 충남의 힘을 결집시키며 총력전에 나섰다.

맹 시장은 지난 2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20회 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15명의 시장·군수와 서산민항 건설 초기 추진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맹 시장은 서산민항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결집을 요구했다.

맹 시장은 "서산민항은 서산의 공항이 아닌 충남의 공항"이라며 "충남의 항공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6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민항을 반영하고 예타대상 사업선정과 서산민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5억원이 반영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맹 시장은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에만 유일하게 공항이

없다는 점과, 해미순교성지의 국제성지 선포, 충남혁신도시 지정, 추진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등을 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서산민항은 2017년 국토부 주관 사전타당성 연구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1.32로 충분히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산민항 건설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맹 시장은 "우선 올 상반기 발표되는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민항이 반영되고 최종 예타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남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산민항의 조기 추진 및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충남 지자체장 모두가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해주시는 등 적극 힘써달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 TV 드라마 속 멋진 그곳? 양양 속 그곳

### 남애항, 하조대해수욕장, 서피비치, 후진항 등 양양 곳곳의 모습 담아



양양군의 곳곳이 드라마와 다양한 예능에 모습을 드러내며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먼저, 지난 2월 막을 내린 예능 프로그램 '땅만 빌리지'는 현북면 중광정리를 기본 촬영지로 양양군의 땅을 빌려 각자의 로망이 담긴 세컨하우스를 짓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그려냈다.

2020년 11월부터 12부작으로 진행된 '땅만 빌리지'에서는 서피비치, 남애항 등 관광지와 함께 양양의 대표 특산물인 양양송이도 소개됐다.

지난해 JTBC를 통해 방영되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14회분에서는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주연배우가 바다 입수를 불사한 연기를 선보였다. 배경에는 하조대 전망대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주인공이 차로 이동하는 장면의 뒤 배경에는 탁 트인 동호리 해수욕장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한편 '부부의 세계'는 배우 김희애 주연으로 평균 시청률 28.4%를 자랑하며 큰 인기를 누렸으며 이로 인해 하조대 해수욕장 또한 드라마 촬영지 검색으로 관심을 받았다.

지난 6월 방영된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후진항 방파제와 등대, 고즈넉한 후진항의 야경이 소개됐으며 페이크 다큐형 로맨스 웹드라마 '도시남녀의 사랑법'은 서피비치와 잔교리에 위치한 서핑샵 등 양양의 관광지를 주요 촬영장소로 선택했다.

또 양양솔비치, 강현면의 카페 등

이 드라마 '신과의 약속', '울랄라 부부'를 통해 소개돼 인기몰이 중이며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32부작으로 방영된 드라마 '포레스트'는 양양 군청 산림복지과 사무실에서 촬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박한 동네밥상에서 진정한 맛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프로그램인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이 최근 한계령 휴게소에서 촬영을 마쳤으며 4월 16일 저녁 8시 TV조선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죽도해변, 서피비치는 음료 및 휴대폰 광고를 통해 TV에서 친근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배민라이브' 촬영된 한 관계자는 이처럼 양양을 촬영지로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푸른 바다와 넓은 해변, 바다와 마주한 예쁜 카페 등 화면에 담아내기에 촬영지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양양은 지난해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청정지역으로 선정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분석결과 관광객 증가율 1위를 차지하며 안전하게 힐링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더해진 것으로 보여 진다.

최재은/기자

#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 올해도 시민의 힘으로 계속~

### 대전시, '2021 누구나정상회담@대전'을 통한 시민 의제발굴 시작

대전시는 시민이 주도하고 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가 협력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 3년차 사업을 올해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9년에 시작한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27개의 단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공 협력으로 운영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블루 사각지대 찾기', '공기업-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채식을 통한 탄소발자국 줄이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활동' 등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15개의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했다.

대전시는 올해는 지난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지속가능한 대전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해법을 찾는 노력에 집중기로 했다.

'공동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한 도시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화모임 창구인 '2021 누구나정상회담@대전'을 통해 시민들의 의제를 발굴한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발굴된 의제들을 생활실천, 시민운동, 리빙랩, 정책 등 문제해결 방법에 따라 공기업 및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와 다양하게 연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 홍성군, 클로렐라로 재배한 홍성마늘로 품질 UP

### 전국 최우수 품질의 홍성마늘 생산목표로 클로렐라 활용

홍성군이 대표 특산물인 홍성마늘을 전국 최우수 품질로 생산하기 위해 영농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홍성마늘의 생육촉진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자체 배양한 농업용 클로렐라를 홍성마늘 연구회에 공급해 엽면시비 방식으로 살포했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에 의하면 클로렐라를 마늘에 활용할 경우 뿌리 활착은 물론 생육촉진과 토양개량에 도움을 주며 병해발생 억제효과와 저장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군에서는 전년 마늘 식재 전 고품질 홍성마늘을 생산을 위한 홍성마늘 표준재배 매뉴얼을 제작 공급하고 홍성마늘의 재식거리에 맞는 전용비닐을 자체개발해 농가에 공급했다.

또한 겨울 한파에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직포를 공동 마늘에 피복



해 부직포를 덮지 않은 다른 지역의 마늘에 비해 잎이 1~2개 많이 발생 하는 양호한 생육 효과를 보이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유기농 자재이자 건강 기능성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는 클로렐라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으로 홍성마늘을 재배해 품질향상은 물론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과 시

장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품질 홍성마늘을 생산해 국내 마늘 재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래종 마늘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는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 동해시, 신재생 에너지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 시공능력, 인프라 등 2개 항목 7개 분야 평가

동해시는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대비해 컨소시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택과 공공, 상업건물 등 특정 지역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에 투입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기업의 신청자격은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이며 신재생 에너지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등이 합동으로 참여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참여기업 중 태양광업

체를 주관기업으로 해 신청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4월 5일부터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동해시청 경제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오는 20일 평가위원회의 시공능력, 인프라 등 2개 항목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며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두루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 민주평통파주시협의회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펼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9일 금촌역 광장에서 최정윤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 동참을 유도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점경지역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함을 널리 알리고 서명운동 확산에 적극 협력했다.

자리를 함께한 최정윤 파주시장은 "파주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점경지역으로 남북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역"이라며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시민의 열의를 모아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윤 협의회장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관련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웰린지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제정 촉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확산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17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지난 20년간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기만료 폐지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박정, 김성원, 윤후덕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한영기기자



# 용인문화재단 임직원, 물품 기증을 통한 나눔 문화 실천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 임직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기증캠페인을 통해 의류, 도서,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1,000여점을 모아 나눔과 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기증한 물품은 비영리공익재단인 아름다운가게 용인동백점에 전달하여 26일 특별 판매전 '용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 행사를 진행했다.

특별 판매전 행사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립의 과정에 필요한 비용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쓰여진다. 재단 관계자는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여

뜻깊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 재단 임직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사회공헌활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단 임직원은 지난해 수해 피해 지역 복구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에 동참하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최근수기자



# 제천시, 민·관 합동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캠페인 실시

제천시는 지난 25일 봄학기를 맞아 이해 학교주변 및 변화가 등 밀집지역 일대에서 청소년유해환경 민관합동 점검·단속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제천경찰서 제천교육지원청,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40여명이 참여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4인 1조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변화가 지역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업주와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청소년 보호의식이 확산되도록 홍보했다.

특히 관내 등록된 유흥주점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단속과 함께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19세미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부착 점검 등의 활동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신 업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제12대 이완균 신임회장 선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가 될 것"



안산시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제12대 회장으로 이완균 신임회장이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신임회장 선출을 위해 지난 22~26일 비대면 총회를 진행했으며 단독 입후보한 이완균 신임회장은 투표자 32명이 전원 찬성해 제12대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완균 신임회장은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으로 합심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새로운 회장님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함양군여성단체협, 사랑과 정성 가득 밑반찬 어려운 60가구 전달

생활개선함양군연합회 20여명 장조림·김치·도라지무침 밑반찬 만들어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생활개선함양군연합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29일 여성자원봉사실에서 김치, 도라지무침, 장조림 3종의 밑반찬을 만들어, 반찬 만들기가 어려운 가정 60가구에 전달했다.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는 군내 13개 여성단체 연합모임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곳은일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으며 소속 단위단체별로 11월까지 월 1회 정기적

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생활개선함양군연합회 김윤임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반찬으로 이웃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자긍심을 갖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 강동문화재단 '문화감동 공연 시리즈' 개최

### 목요일예술무대, 스콘, 한밤의 음악산책...공연 풍성

강동구 강동문화재단은 2021년 '문화감동 공연 시리즈'로 '목요일예술무대', '스콘: 스튜디오 콘서트' 그리고 '한밤의 음악산책'을 개최한다.

강동아트센터의 대표 공연 프로그램으로 오랜 시간 구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세계의 공연 시리즈는 올해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부담 없는 관람료로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코로나19로 여행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사람들의 수요를 반영한 '스콘: 스튜디오 콘서트'와 '한밤의 음악산책' 시리즈는 음악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와 도시를 소개해 세계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 나도록 세심하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2014년부터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목요일예술무대'는 올해도 매일 다양한 장르와 가족 단위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4월은 '와이즈발레단'의 발레 갈라 프로그램인 '발레야 놀자'로 화려하게 시작한다.

고전 발레의 정석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부터 러시아 민화를 바탕으로 한 '곰사냥이 망아지'까지 클래식 발레의 유명 작품 하이라이트 장면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어린이날 기념으로 2회 개최되는 5월 공연은 난버벌 퍼포먼스 '브레이크 아웃'으로 자유를 향한 좌충우돌 최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탈옥기를 익살스럽게 표현한다.

6월은 전 세계 월드뮤직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현대적인 감성의 국악 밴드 '악단광칠'의 콘서트 '인생 꽃갈래', 그리고 상반기 마지막 7월의 '목요일예술무대'는 월드베스트 아카펠라 그룹이자 유튜브에서 50만 팔로워를 이끄는 '보이스 밴드 엑시트'의 콘서트 'Only Voices'로 마무리한다.

'스콘: 스튜디오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콘셉트로 색다른 '쉽'의 시간을 선사한다. '스콘'은 공연장이 아닌 리허설룸으로 이용하는 스튜디오에서 열리며 관객과 아티스트가 밀접하게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살롱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의 감동을 더하고자 기획된 브런치 콘서트다.

올해 '스콘'은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독일 함부르크 그리고 미국 뉴욕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준비했다. '주빈트리오'의 러블리한 프렌치 멜로디와 상송으로 파리의 정취를 즐기는 3월, '기타코르트 피에스타'의 정열적인 기타 선율로 느끼는 5월의 마드리드, 바흐와 수만 등 독일 작곡가들의 곡을 스윙한 첼로 선율에 담아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아더 첼로 파르티트'의 함부르크 9월 여행 그리고 누구나 한번쯤 꿈꿔보는 뉴요커의 일상을 로맨틱한 재즈로 풀어낸 '장태희 트리오'의 뉴욕 이 야기가 11월에 준비되어 있다.

'한밤의 음악산책'은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9시,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에서 관객을 만난다. '한밤의 음악산책 2021'은 브라질, 자메이카, 스페인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월드뮤직을 준비했다.

4월의 보사노바 밴드 '브루나'는 브라질 음악을 보사노바로 풀어낸 독특한 밴드로서 포근한 봄의 감성에 어울릴 음악을, 자메이카의 음악 SKA와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JAZZ를 결합한 '스카재즈유닛'은 5월 밤, 신명나는 시간을 선사한다. 9월에는 한국 최초의 플라멩코 칸타오리안 나옴을 필두로 기타, 퍼커션 그리고 플라멩코 무용을 함께 선보이는 '프로젝트 NAEM'의 열정적이고 진한 스페인 멜로디가, 그리고 마지막 10월은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팽고 여행으로 반도네온과 함께하는 '망고 콜렉티브'가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강동문화재단의 '문화감동 공연 시리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좌석 거리두기로 운영되며 발열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체크인 및 전문 방역업체의 객석 방역 등 철저한 방역 및 예방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동문화재단의 '문화감동 공연 시리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좌석 거리두기로 운영되며 발열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체크인 및 전문 방역업체의 객석 방역 등 철저한 방역 및 예방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동문화재단의 '문화감동 공연 시리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좌석 거리두기로 운영되며 발열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체크인 및 전문 방역업체의 객석 방역 등 철저한 방역 및 예방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동문화재단의 '문화감동 공연 시리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좌석 거리두기로 운영되며 발열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체크인 및 전문 방역업체의 객석 방역 등 철저한 방역 및 예방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동문화재단의 '문화감동 공연 시리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좌석 거리두기로 운영되며 발열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체크인 및 전문 방역업체의 객석 방역 등 철저한 방역 및 예방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동문화재단** 10th Anniversary

**목요일예술무대**

2021 상반기 목요일에 만나는 문화감동

**와이즈발레단**  
발레야 놀자  
4월 11일 | 7:30PM

**난버벌 퍼포먼스**  
브레이크 아웃  
5월 5일 | 3:00PM  
5월 6일 | 7:30PM

**악단광칠**  
인생 꽃갈래  
6월 3일 | 7:30PM

**보이스밴드 엑시트**  
Only Voices  
7월 1일 | 7:30PM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정  
티켓 전석 5,000원 (복지할인 50% 홈페이지 참고)  
공연료 강동아트센터 02.4440.0500  
www.gdfac.or.kr

황규석기자

# 수원시립교향악단 제271회 정기 연주회, 말러 교향곡 4번 "천상의 삶"

수원시립교향악단(이하 수원시향)이 오는 4월 8일(목) 저녁 7시 30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말러 교향곡 제4번으로 제27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최희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홍혜란과 함께 나서 큰 기대를 모으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거리두기 대면 공연으로 진행된다.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4번은 '천상의 삶'을 향한 여정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말러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간결한 교향곡에 속하지만 감동적이며 밝고 쾌활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유쾌한 일면과 단아한 형식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작품의 마지막 4악장은 1892년에 그가 작곡했던 소프라노를 위한 가곡 '천상의 삶'을 활용한 것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을 노래하고 있다. 수원시향은 이번 공연에서 최희준 예술감독의 지휘로 세계적인 권위의 음악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성악 부문 최초 우승자인 소프라노 홍혜란과 함께 말러의 '천상의 삶'을 음악으로 새롭게 그려낼 예정이다.

이에 앞선 첫 무대에서는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와 함께 3관왕을 거머쥐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던 차세대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협연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2번이 연주된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11살에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뒤, 국내 유수 콩쿠르에서 잇따라 우승하였고, 2018년 세계적인 주니어 콩쿠르인 클리블랜드 청소년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2위 및 쇼팽 특별상을, 쿠퍼 국제

콩쿠르에서는 최연소 참가자로 두각을 나타내며 3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최희준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에 대해 "말러 교향곡 4번을 통해 가난과 질병이 없는 '천상의 삶'을 들려드리고자 한다"며, "음악이 주는 힘과 위안으로 코로나19 이해 힘든 이 시기를 우리 모두 잘 극복해 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연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아카데미도 준비되어 있다. 공연 이틀 전인 6일(화) 오후 7시 30분,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수원시향 부지휘자 신은혜의 강연으로 클래식 아카데미가 진행된다. 전석 무료로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홈 페이지와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예매는 수원시립예술단 홈페이지(www.artsuwon.or.kr)와 전화(031-250-5362~5)를 통해 할 수 있다.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



최정근기자

# 광명문화재단, 2021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선정


### '마주보는 콘서트 - 클래식의 맛'으로 1년 간 8개 공연 선보여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마주보는 콘서트 - 클래식의 맛' 시리즈를 기획하여 총 8개 공연을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에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광명문화재단의 '마주보는 콘서트 - 클래식의 맛'은 '마지막 주에 보는 콘서트'라는 의미로 2019년 '국악의 맛', 2020년 '재즈의 맛'에 이은 연속 시리즈로 기획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수한 젊은 클래식 연주자와 단체를 초청하여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번 '클래식의 맛' 시리즈는 4월 ▲홍진호, 김진세의 <태양의 노래>, 5월 ▲안중도의 <함부르크 음악 여행>, 6월 ▲코리아오페라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7월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원한 클래식 음악회>, 8월 ▲듀오 피다의 <클래식 인싸 & 아싸>, 9월 ▲라 클라제의 <팜페라 낭만 콘서트>, 10월 ▲레이어스 클래식의 <색다른 클래식>, 11월 ▲복체 파르티트의 <북 앤 클래식>으로 총 8개 팀이 다양한 클래식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여행, 문학과 클래식의 만남, 첼로와 기타, 플루트와 하프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조합의 실내악, SNS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을 선보이는 젊은 클래식까지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완성도 높은 연주를 일 년 동안 만날 수 있다. 또한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공연은 광명시 관내 찾아가는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식의 맛'은 코로나 19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클래식의 맛'은 만 7세 이상 관람



GMC 초이스 마지막 주에 보는 콘서트

**클래식의 맛**

4.28. 태양의 노래  
홍진호, 김진세

5.26. 함부르크 음악 여행  
안중도

6.30. 색다른 공연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코리아오페라필하모닉오케스트라

7.28. 시원한 공연  
시원한 클래식 음악회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8.25. 클래식 인싸 & 아싸  
듀오 피다

9.29. 팜페라 낭만 콘서트  
라 클라제

10.29. 색다른 클래식  
레이어스 클래식

11.24. 북 앤 클래식  
복체 파르티트

2021.4.28. - 11.24.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

티켓 10,000원 (공연인원 1명 기준)  
예매 | 광명문화재단 www.gmcf.or.kr (공연인원 1명 기준)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명문화재단 후원 | 광명시  
문의 | 광명문화재단 예술기획팀 02-2621-8845

가이며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다. 예매는 광명문화재단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www.gmcf.or.kr)에서 가능하다.

한편, 2021년 광명시민회관에서 기획한 'GMC 초이스' 공연 관람 후 현장에서 관람 카드에 스탬프를 받으면 광명시민회관 기념품을 증정하는 (GMC 관람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연 3회 관람 시 양말 2중, 5회 관람 시 고급 핸드타월 세트를

증정한다. 관람 카드는 공연 당일 광명시민회관 1층 서비스 플라자에 수령 가능하다.

또한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mcf.or.kr) 열린 광장 <후기계시관>에 공연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공연 및 이벤트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광명문화재단 예술기획팀(02-2621-8845)으로하면 된다.

전순희,원준규기자

#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2021 <시나위 일렉트로니카>

### 시나위의 창조정신과 일렉트로니카의 만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예술감독 원일)가 레퍼토리 시즌 2021 첫 공연으로 <시나위 일렉트로니카>를 4월 9일 오후 8시, 10일 오후 4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시나위에 기반을 둔 다양한 창작음악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가 이번 공연에서는 일렉트로니카와 만난다. 20세기에 등장한 전자음악(일렉트로니카)은 대중음악과 실험음악의 경계를 넘어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이런 전자음악이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어우러져 매력적인 한국적 일렉트로니카로 극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 공연에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하임(haihm), 코리아(COR3A), 여노(YeoNo), 아킴보(Akimbo), 무토(MUTO)와 함께 한다. 이들은 일렉트로닉 뮤지션들로 분류되지만 스타일들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

하임(haihm)은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하고 일렉트로닉 음악을 기반으로 한, 두 장의 개인 앨범을 발표한 팀이다. 여러 활동을 이어가며, 순수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전달할 방향을 늘 고민하는 팀이다. 코리아(COR3A)는 'Creators of Rave & Electronic Arts'라는 의미로, 전자음악을 중심으로,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아트, 오디오비주얼, 미디어아트 등을 창작하는 그룹이다. 여노(YeoNo)는 한국을 베이스로 활동중인 전자 음악 및 오디오비주얼 아티스트다. 또한 사운드 디자이너이자 영상 제작자이기도 하다. 여노는 1996년부터 재즈 뮤지션으로 직업 음악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아킴보(Akimbo)는 디제이, 프로듀서이자 라이브 뮤지션이다. 레코드 레이블 토널유니티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BBC 라디오 1, 월드와이드 FM, 린스, 보일러룸, 에이블톤에서도 소개된 경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무토(MUTO)는 '광활한 대지'를 상징하며, 그래픽 아티스트 박준규, 거문고 연주자

인 박우재, 이디오테일의 프로듀서인 신범호,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홍찬혁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비주얼아트와 일렉트로니카 사운드를 결합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나위일렉트로니카> 공연의 목표는 단순한 한국 전통음악과 일렉트로닉 음악의 결합만이 아니다. 장단과 화성을 섞고, 악기의 질감을 버무리며, 사운드의 파장을 뒤바꾸는 일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결합

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음악이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는지, 일렉트로닉 음악은 한국 전통음악을 얼마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장이 될 것이다.

공연의 총 감독을 맡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원일 감독은 "우리 민족 음악 '시나위'에 담긴 한국의 음악과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수용하고 창작해내고자 한다"고 공연에 임하는 소감을 전했다.

최근수기자



GGAC 레퍼토리 시즌 2021

**시나위 일렉트로니카**  
SINAWI ELECTRONICA

예술감독 | 원일

하임 | haihm

코리아 | COR3A

여노 | YeoNo

아킴보 | Akimbo

무토 | MUTO

2021.4.9-1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경기도주식회사-업사이클플라자,재활용품 활용 기업 판로개척 MOU

## “도내 업사이클 기업들의 유통 채널 입점에 큰 힘”

최근 친환경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구매 시장 및 온·오프라인 판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업사이클 기업을 위해 나선다.

최근 친환경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구매 시장 및 온·오프라인 판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업사이클 기업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와 이 같은 내용의 '업사이클 분야 중소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지난 29일 판교 스타트업캠프

에서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사이클'이란 업그레이드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을 합친 단어로 재활용품의 디자인을 향상하고 활용도를 높여 제품을 재탄생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7년 만에 착공

## 2025년까지 466억 투입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 성장 거점화

진주시는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2014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산업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7년 만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5년까지 466억원을 투입해 재생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평산업단지 일원 205만 7000㎡ 부지에 협소한 도로와 노상 불법주차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및 주차장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근로자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공원 조성 등 공공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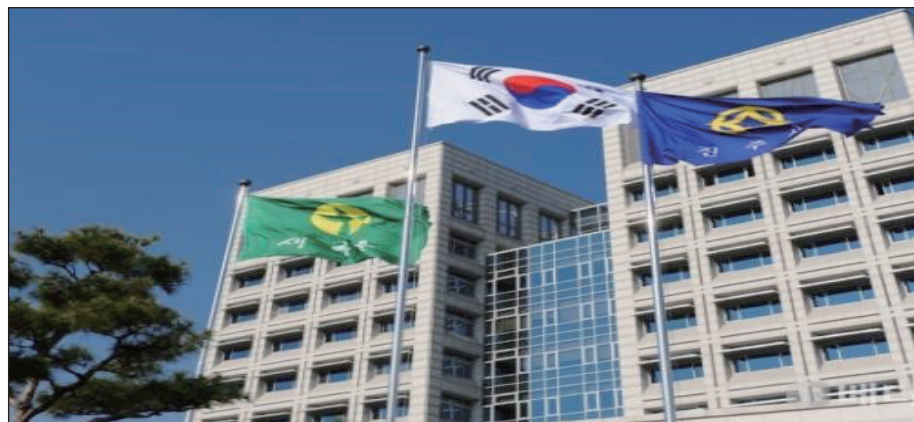
올해 우선 시행하는 공단로 구간은 지난 2013년 혁신도시와 연계해 김시민대교~상평공단~진주원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김시민대교~구삼삼주유소의 1,362m 구간 중 1,140m는 혁신도시 서측진·출입로 확장공사로 8차로로 확장되었으나 나머지 222m 구간은 도로확장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출퇴근 또는 도로변 하역작업 시 장애가 가중되어 공단 물류 수송의 큰 저해 요인이 되어 왔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별도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복합용지 도입은 국토연구원과 공모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며 LH와 공동개발 추진 중에 있는 상대동 일원 활성화 구역 개발사업은 LH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한지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 도로확장사업이 마무리되면 공단 진·출입지점의 수송이 원활하게 되고 혁신도시 간 이동이 크게 개선되어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오전 공단로 병목구간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기반시설 착공으로 본격적인 재생사업이 추진된다”며 “향후 복합용지 공모사업, 활성화구역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상평일반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되어 도심 내 낙후지역에서 성장거점지역으로 변모될 것이다”고 말했다.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산단 환경 조성을 위해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2025년까지



최광용/기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포장재 등 폐기물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과 친환경적 제품 생산·유통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최근 가치 소비와 친환경적 소비 인식 확산에도 업사이클 기업들의 유통 채널 입점,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협력과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창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제조와 상품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판로 확보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주식회사의 협력이 도내 업사이클 기업들의 유통 채널 입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기도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는 환경과 소비가 융합하는 업사이클 산업의 육성·활성화를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최근수/기자

# 강동구,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사업' 산업부 공모 선정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에너지 자립생태계 구축

강동구는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강동구 그린뉴딜 기술 국산화를 통한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부지사용이 적은 도심형 연료전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대상 선정 시 정부로부터 사업비의 25%를 지원받게 된다.

연간 8,059MWh의 전기를 생산하며 부생열을 지역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동구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동서발전과 지난해 9월 친환경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102개소의 사업대상을 조사해 강동구 지역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한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라 연간 2백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과 연간 약 17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발전사업 수익금 일부는 강동구 사회취약계층 약 13,000여명에게 강동사랑상품권 등을 발행해 전기 및 난방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동구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은 강동구와 한국동서발전, ㈜시너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총사업비 96억 중 정부와 지자체가 각 24억, 나머지 비용인 48억은 한국동서발전이 부담하며 지원 규모로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이다.

또한 구축된 시스템은 동서발전 본사 내 위치한 종합 에너지관리센터인 'MSP Center'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에너지사용 최적화 지원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내 시설 및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줄이기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저탄소 그린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강동구가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시티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자립 생태계를 조성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그린시티 강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최초로 1MW급 제4세대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를 적용해 저온 운전으로

황규석/기자



# 대구시, '신기술 사업화 프로젝트'사업 신규참여기업모집

## 기업당 최대 6천만원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은 기업부담금 50% 감면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발굴해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21년 신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오는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6천만원이며 기업에서는 총 지원금의 20%를 부담하게 된다.

대구시와 대구TP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화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시험평가 마케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단,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의 50%가 감면 가능하다. 코로나 피해기업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신청접수는 오는 4월 9일까지

신기술사업화 사업은 지난 8년 동안 총 109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작년에는 10개 프로젝트를 지원해 신규매출 19억 2천만원 신규고용 17명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 피해기업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신청접수는 오는 4월 9일까지

지원대상은 대구 내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는 대구 5대 신산업, 스마트시티 및 전통산업 10개 분야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지역 기업의 R&D 성공률에 비해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사업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신기술사업화 사업은 사업화에 필요한 전 분야를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며 지원금을 100% 선지급해 지역기업의 사업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유망 신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발굴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영기/기자

# 세종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과학벨트의 과학기반 기술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고 세종소재 기업·대학의 참여를 기다린다.

기업에 대상으로 오픈마켓,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채널별 제품홍보 기회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학벨트 기업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과기정통부와 과학벨트 지원사업 전문기관인 연구재단이 '2021년도 과학벨트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관내 대학에서는 고려대, 홍익대가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지원 사업비는 국비 총 122억원 규모로 대전, 세종, 청주, 천안 등 과학벨트 소재 대학·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류제일 시 경제정책과장은 “관내 대학과 기업의 역량강화는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세종의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에 관내 기업과 대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은 비즈니스모델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창업·성장 지원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산학연계 인력양성 등 10개 사업이다.



최재은/기자

사업공고 기간은 오는 4월 19일까지로 제출서류는 4월 5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특구재단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특히 특구재단은 올해 과학벨트



# 대구 수성 위버센트럴



# '시지프스' 김병철, 그것이 알고 싶다! 시그마 미스터리 팩트 체크



JTBC 10주년 특별기획 '시지프스: the myth'(극본 이재인 전찬호, 연출 진혁, 제작 드라마하우스 스튜디오, JTBC스튜디오, 이하 '시지프스')의 세상을 멸망시킬 어둠의 표식, 시그마(김병철)가 미스터리 중심에 섰다. 등장하는 장면마다 엿보이는 의문스러운 면모들은 그의 마음 속에 얼마나 거대한 어둠이 숨겨져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기 때문. 이에 시그마를 둘러싼 미스터리리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봤다.

## #1. 시그마가 원하는 건 조승우의 업로더?

절대 악 시그마는 통제불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치밀하게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실행 중이다. 그 어둠의 계획을 실현시키려면 절대적으로 천재공학자 한태술(조승우)의 업로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제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강력한 약점이 있어야만 했는데, 태술을 지키기 위해 미래에서부터 밀고도 위험한 길을 거슬러 온 강서해(박신혜)는 알맞은 타이밍에 나타난 아주 좋

은 '먹잇감'이었다. 위기 속에서 태술과 서해의 사랑이 피어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한대로 둘의 사이는 끈끈해졌다. 이제 시그마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설 차례. 태술을 시험해 보기 위해 강서해를 위기 속에 몰아넣고, 업로더의 마지막 코딩을 해주면 여자를 살려주겠다 협박했다. 시그마가 원하는 대로 태술의 답은 언제나 서해였다.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10월 31일, "여자야, 세상이야"라는 시그마의 최후의 질문에 태술이 같은 선택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 #2. 시그마와 단속국은 한때?

시그마와 출입국 외국인청 단속7과(이하 단속국)는 한때다. 현재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밀입국자들을 단속해오던 단속국이 제일 먼저 업로더를 타고 넘어온 시그마를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간 단속국의 다소 엉성했던 일 처리 방식에 대한 미스터리는 깔끔히 해소됐다. 10월 31일에 맞

춰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던 '마지막 퍼즐'인 태술과 그의 '약점'인 서해가 살아 있어야 했기 때문. 단속국이 이들을 계속해서 쫓았던 이유 역시 태술과 서해가 위기 속에서 서로를 구해주면서 관계가 깊 어지게 만 들리는 조직의 회장, 시그마의 뜻이었다. 이 시지프스 운명이 계속해서 철저히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 여기에 "시그마와 단속국의 밀접한 관계는 이번 주 방송에서 한 꺼풀 더 베일을 벗는다"라는 제작진의 귀뜸이 더해져 기대를 높인다.

## #3. 시그마는 예지력이 있다?

시청자들을 더욱 미스터리 속으로 빠트린 건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한 태술과 어린 시그마, 서원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 자신이 그린 일은 꼭 실제로 일어난다면 서원주는 마치 태술의 미래를 알고 있는 듯 '추락하는 비행기를 고치는 태술이', '타임머신을 발명한 태술이', '한국 최고의 회사를 만드는 태술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몇 십 년 전에

# '음색여신' 레드벨벳 웬디, 더블 타이틀 곡 'Like Water' 청아한 매력 예고

## 청정 보이스+따뜻한 사운드+감동 메시지 조화

솔로 데뷔하는 레드벨벳 웬디가 타이틀 곡 'Like Water'로 올봄 따뜻하면서도 청아한 매력을 들려준다. 웬디의 첫 솔로 앨범 'Like Water'는 4월 5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공개되며 더블 타이틀 곡 'Like Water'와 'When This Rain Stops'를 비롯한 총 5곡이 수록되어 있어 뜨거운 호응이 기대된다. 타이틀 곡 중 하나인 'Like Water'는 웬디의 부드럽고 청아한 보컬과 섬세한 완곡 조절이 돋보이는 어쿠스틱 팝 발라드 곡으로 히트메이커 유영진과 켄지, 프로듀싱팀 Coach & Sendo 등이 함께 곡 작업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인 만큼, 따뜻한 감성

으로 음악 팬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특히 가사에는 서로의 존재와 의미를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물'에 비유해, 작은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서로에게 운명처럼 흘러간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펼쳐갈 새로운 여정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감동을 더한다. 또한 지난 0시 각종 SNS 레드벨벳 계정에는 웬디의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티저 이미지와 무드 샘플러가 공개되어 앨범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전순희/기자



# 왕의 귀환 D-1, 백현 새 미니앨범 'Bambi' 기대 포인트

## #웰메이드 음악 #감각적인 스타일 #원톱 솔로 파워

엑소 백현의 새 미니앨범 'Bambi'가 3월 30일 발매된다.

이번 앨범은 백현이 약 10개월 만에 선보이는 새 솔로 앨범으로 백현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만날 수 있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백현 세 번째 미니앨범 'Bambi'는 동명의 타이틀 곡 'Bambi'를 비롯해 'Love Scene', 'All I Got', 'Privacy', 'Cry For Love', 작년 연말 싱글로 공개된 '놀이공원'까지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사랑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분위기의 R&B 곡들로 구성, 그동안 솔로 앨범을 통해 선보여온 백현만의 R&B 음악 감성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며 KENZIE, DEEZ, LDN Noise, Tone Stith, Colde, SAAY 등 인기 뮤지션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백현은 이번 앨범에 음악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의상 스타일링에도 아이디어를 내는 등 적극 참여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했다.

타이틀 곡 'Bambi' 뮤직비디오 역시 곡의 그루비한 분위기와 어우러진 시크한 스타일링, 섬세미가 돋보이는 포인트 제스처 등 백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감각적인 영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백현은 작년 5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Delight'로 그룹에 이어 솔로 가수로서도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대기록을 세웠으며 2년 연속 가온차트 솔로 앨범 최다 판매량 기록,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전 세계 69개 지역 1위 등 막강 파워를 입증했다.

이번 앨범은 솔로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백현의 새 앨범으로 발매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만큼 '원톱 솔로' 백현이 이어갈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최재은/기자



# '화보 여신' 문가영, 고풍적 자태+깊은 카리스마로 시선 압도

## 문가영, 한층 성숙해진 아름답고 우아한 비주얼 공개

배우 문가영이 패션매거진 보그 코리아 4월호 화보를 통해 아름다운 자태로 시선을 압도했다.

드라마 '여신강림'을 통해 MZ세대 뷰티·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문가영이 29일 공개된 화보에서 한층 성숙해진 매력을 과시했다. 시크하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의 스타일 연출과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으로 특유의 우아함을 배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문가영은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더욱 깊어진 눈빛으로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디올'의 고풍적인 분위기를 완성했다.

여기에 다채로운 컬러와 옛지있는

디자인부터 모던한 매력의 디올의 파인주얼리 뉴 컬렉션 GEM DIOR의 주얼리와 시계를 특유의 현대적인 매력으로 소화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문가영은 컬렉션의 다양한 주얼리 아이템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감각적인 화보를 만들어내며 스타일 아이콘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대세 배우로 떠오른 문가영의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담긴 화보는 보그 코리아 4월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정동희/기자



# '속아도 꿈결' 류진, 전업 주부 금상백으로 완벽 변신

'속아도 꿈결' 류진이 전업 주부 금상백으로 완벽 변신했다.

누가 뭐래도 후속으로 29일 첫 방송한 KBS1 새 일일드라마 '속아도 꿈결'(극본 여명재, 연출 김정규)은 서로 다른 문화의 두 집안이 부모의 황혼 재혼으로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막장 제로 무공해 청정 드라마이다.

류진은 40대 초반 한창 나이에 퇴직당한 후 배우 주부 남편이 된 금상백역의 한 하루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금상백의 모습이 그려져 시선을 사로잡았다.

꿈 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난 상백은 숫자들을 듣게 되었고, 일어나 수첩에 적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상백은 불고기를

를 들고 찾아온 모란(박준금 분)과 대화하다 죽이 잘 맞는 씩씩한 성격을 보였지만 아버지 얘기에는 모란 성격의 아버지와는 교류하지 말라고 말해 아버지와 관계를 알 수 있게 했다.

그러다 족욕기를 아내가 중고마켓에 판 것을 알게 된 상백은 충격에 빠지고 족욕기를 산 사람을 만나려고 애썼다. 알고 보니 상백이 겨우 겨우 모든 비상금을 족욕기에 모아놓았던 것. 만나자고 하는 상백의 전화를 받은 구매자는 이상한 사람이라며 차단을 하고, 상백의 사연을 들은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족욕기는 찾았지만 결국 비상금은 찾지 못했다.

친구들과의 낚시 여행 비용으로 비상금을 쓰러던 상백은 좌절했지만, 복권 판매점을 지내던 그는 할머니가 알려준 번호로 복권을 사며 기대감에 한껏 들떴다. 저녁이 되어 잠감을 시준다며 나오라는 부인 영혜(박탐희 분)의 전화에 기분 좋게 나간 상백은 자신의 비상금을 부인이 가져갔음을 알게 돼 다시금 우울해졌다. 그러나 아버지 중화(최정우 분)과 모

란이 포용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지면서 모든 걸 잊은 상백의 모습으로 극은 끝나 이후를 궁금하게 했다.

류진은 바로 전작 KBS2 '오! 삼삼빌라'에서 외모와 직업, 성격까지 모두 완벽했던 매니저 손정후에서 180도 다른 캐릭터인 금상백으로 완벽 변신해 흥미를 높였다. 시선을 사로잡는 외모는 비슷하지만, 해맑은 금상백으로의 변신은 오히려 더 큰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류진은 풍부한 경험 연기와 밝고 긍정적인 매력으로 근엄한 아버지 앞에서는 기가 죽지만 옆집 모란과는 수다가 딱 맞는 찰떡 공감에, 부인 앞에서는 아이 같고, 자식들 앞에서는 친구 같은 캐릭터를 생생하게 살리며 극의 흥미 지수를 높이는 데 성공해 앞으로 금상백으로서 펼칠 이야기 전개에 기대를 높였다.

한편, 부모의 황금빛 황혼 로맨스를 둘러싸고 예측불허의 사건, 사고들이 속출할 '속아도 꿈결'은 평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최민식/기자